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83호
2026년 4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발행인: 황효숙 편집장: 신복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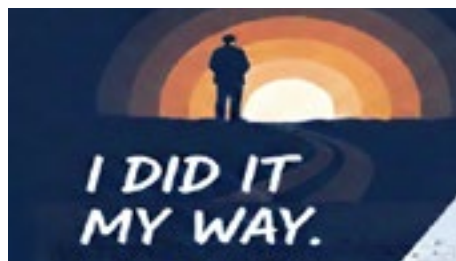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뉴욕 동문들의 따뜻한 만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동문이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지난 3월 23일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뉴욕 동문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 서울대 동창회와 서울 음대 동문회가 공동 주최하고 KMF가 후원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과 가족 120여명이 참석해 조수미 동문의 눈부신 세계적 성취를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동창회 측은 조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동문' 감사패를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자리에 모인 조수미(사진 중앙 드레스 차림) 동문과 뉴욕 동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계기사=4-5면>

“자서전? 그까이꺼... AI와 함께 같이 써보실래요”

미주동창회, 회고록 쓰기 'MY Way' 출범
동문은 말하고 AI가 다듬어 멋진 자서전으로
5월20일 남가주 정연웅 동문 첫 주자로 나서



조국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 미주 동문들이 생의 끝자락에서 꼭 이루고 싶은 숙원 중 하나는 바로 자서전을 쓰는 일이다. 이는 치열했던 지나온 삶을 정리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라기보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의 시작'을 알리고 싶은 간절함, 아니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풍량을 헤치며 이곳에 뿌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뿌리는 무엇인지... 자신의 기록이 후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고 삶의 단단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에, 동문들에게 자서전을 남기는 일은 생의 마지막 숙제같은 것이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서전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하나, 평소 글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고 대필을 구해야 하나?”

미주동창회가 동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녹음해 AI를 이용해 자서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MY Way' 줌 미팅을 시작한다. 첫 주자는 남가주 정연웅(상대 63) 동문으로 오는 5월20일 오후 5시(서부시간) 미주동창회 줌으로 첫 'My Way'를 띄운다.

미주동창회는 매달 첫째 수요일 AI 디스커버리 클럽, 매달 둘째 화요일 기업가 네트워크(Entrepreneurship Network), 매달 둘째 토요일 SNUAA 포럼 등 동문들이 참여하는 고정 줌 미팅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달 첫째 수요일 'MY Way'라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오픈한 것이다.

'My Way'를 기획한 한홍택(공대 60) IT 위원장은 “대학 강의실에서 시작해 미국이라는 드넓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현장까지, 우리는 각자의 여정을 걸어오며 저마다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다”며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함께 기념하며 동문 공동

체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기 위해 'My Way'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동문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쉬우니까 남기고 싶은 말을 하면

이를 바탕으로 AI 라이팅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자서전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AI 사용법을 모르면 가르쳐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가방법은 간단하다.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aa.org) 우측의 'My Way'를 클릭 후 자서전 희망자로 등록하면 된다. 커뮤니티 참가만을 원하면 오는 5월20일 오후 5시 미주동창회 웹사이트를 통해 'My Way' 줌미팅에 들어오면 된다.

미주동창회, 제3차 지부 회장 회의 열려 6월 미네아폴리스 평의원회 열띤 논의

미주동창회 각 지부 회장이 참여하는 제3차 줌 회의가 지난 3월27일 6개 지부 회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박상근 차기회장, 지부지원 담당 고문인 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 회장을 비롯해 뉴잉글랜드 원덕수(공대 72), 필라델피아 김영석(음대 74), 남가주 양수진(간호대 80), 뉴욕 김병순(사회

대 82), 워싱턴DC 남욱현(경영대 84) 회장이 참석해 오는 6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제35차 평의원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황효숙 회장은 지부 회장들에게 평의원회의의 행사와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각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들의 참가를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기사=3면>

서울대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Tel: 612-280-7589 | Email: contact@snuaa.org

“나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동창회 터 닦아 보람”

4년 임기 마무리한 김종섭 총동창회장

지난 3월 27일 서울대 총동창회장 임기를 마친 김종섭(사회사업66)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동창회의 큰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학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동창회 활동을 친목 중심에서 사회공헌 중심으로 확장했으며 재학생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통해 동문 사회의 저변을 넓혔다. 사업차 남가주에 수개월씩 머무는 동안 남가주 동창회와 미주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 남가주 동문들 사이에서 그는 총동창회장이라는 격식보다 ‘남가주 가족’ 같은 친근한 동문으로 통한다. 총동창신문의 이용식(토목79) 논설위원(문화일보 주필)이 김 회장과 그의 퇴임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4년을 어떤 마음으로 동창회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동창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여 년 전 장학빌딩 건립 기부 때였습니다. 이후 ROTC동문회장, AMP동창회장 등 여러 동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울대 동창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인재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그 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4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재임 기간에 새롭게 만든 행사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 가족음악회 아닐까 싶습니다. 동창회 행사 중에 대규모 실내 행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죠.” -지금은 동창회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학금 40억 원, 4년 전보다 두 배 증가
학생회 · 동아리 · 운동부 재학생 지원
가족음악회 봄철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10만불 기부, 미주 동문회관 건립 제안

습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친목 모임을 넘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창설을 제안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도 세계 대학으로 가려면 말뿐 아니라 실제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과정에서 동창회도 학생과 학교, 동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강조 하셨습니다.

“행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대회를 한다고 하면 참가비 일부를 장학금이나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는 방식이죠.”

-참여도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대회 비용이 25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받아서 절반은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하면 참여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나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대학 시절부터 형성됐다고 말했다.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실습을 다녔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김 회장은 2016년 이후 매년 10억 원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서울대와 본회에 100억 원 이상의 기부를 실천했다.

-장학사업도 크게 확대하셨지요.

“4년 전인 2021년에는 장학생이 약 1100명이었고 장학금이 27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400명에게

“처음에는 적자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눔의 의미를 넣으니까 참여가 늘었어요. 지금은 수천만원의 기금이 남고 그 기금이 장학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동창회의 가장 큰 과제는 참여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동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도 늘렸죠. 이들이 몇 년 뒤 동창회의 활력원이 될텐데, 동창회가 친숙하다면 참여도 자연스럽게 늘 거라 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었습니다.

“젊은 동문들이 동창회를 멀게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문 전용 쇼핑몰 ‘Mall SNUA’를 만들었죠. 동문 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어요. 현재 1만 3000명 정도의 동문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는 앞으로 동창회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에는 훌륭한 강의와 특강이 많아요. 이런 콘텐츠를 모아 유튜브 채널로 만들면 동문 사회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해외 동문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미국을 자주 가다 보니 동문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주 동문사회는 구심점이 부족하더군요. 회관이 없으니 직원도 없고 모든 것이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미주에 동문회관 건립을 제안 하셨군요.

“네. 제가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미주 동문회관 건립을 제안했죠. 미주 동문들이 100만 달러를 모으면 총동창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김종섭 회장, UCI 이사 선임 외국인으로는 최초 ... 한인 영향력 확대

김종섭 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삼익악기 회장)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UC 어바인 재단 이사로 선임됐다.

UCI 이사회는 지난 3월 16일 김 회장의 이사 추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총 7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 회장은 신설된 국제담당 이사(International Ambassador Trustee)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사회는 김 회장 영입을 위해 정관을 개정해 해당 직책을 새로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임기는 3년이며, 재선임 시 연임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그동안 서울대학교와 UCI 간 협력 관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 2년 전 하워드 길먼 UCI 총장이 서울대학교의 유홍립 총장을 방문해 양교 간 MOU를 체결할 당시 이를 기념해 100만 달러를 기부, 깊은 인상을 남겼다.

UC 계열 10개 캠퍼스 가운데 한인 또는 한국인이 재단 이사로 참여한 사례는 UCI가 유일하다. 이번 선임으로 UCI 이사회 내 한인 이사는 캐롤·유진 최 부부(UEC 창업자) 등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어나며, 한인 사회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UCI 이사회에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공동 창업자인 헨리 새뮤엘리 등 유력 기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회와 발전기금이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동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10만 달러씩 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회관이 생기면 미주 동문사회의 활동이 훨씬 활성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문 사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외를 다녀보면 대한민국이 세

계 중심 국가가 됐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저는 회장직은 내려놓지만 앞으로도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대담 : 이용식(토목79) 문화일보 주필 · 본지 논설위원, 정리=김남주 기자

프로필

김종섭 회장은 1970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사업학과(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아스팔트 플랜트 기업 스페코(SPECO)를 창업해 산업플랜트 분야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2002년 삼익악기를 인수해 악기 제조·문화사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 스페코 및 삼익악기 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냈으며 국제개발협력 NGO인 코피온 이사장 등 공익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Lake Minnetonka 크루즈와 특별 음악회로 더욱 풍성하게

미주동창회 제35차 평의원 회의, 6월 26일~28일 미니애폴리스

제35차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황효숙) 평의원회가 6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다. 행사장인 캄브리아 몰 오브 아메리카(Cambria Hotel Mall of America)는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MSP)과 인접해 미주 각지에서 오가기 편리한 위치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이번 평의원회에는 미네소타의 수변 풍경과 클래식 선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특히 눈길을 끈다. 미네통카 호수(Lake Minnetonka) 크루즈와 토요일 특별 음악회가 그것이다.

이틀간의 크루즈, Lake Minnetonka

크루즈는 27일(토)과 28일(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토요일 오전에는 평의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동문과 동반 가족을 위한 별도 호수 크루즈가 마련된다. 평의원회 공식 일정 속에서도 가족들은 6월의 미네소타를 호수 위에서 온전히 즐길 수 있다. 크루즈 이후에는 500여 개 매장과 실내 테마파크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Mall of America 투어까지 이어져 동문 가족에게도 알찬 하루가 완성된다.

일요일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 회장이 사흘간 함께한 동문을 크루즈 런치 선상 파티에 직접 초청한



Lake Minnetonka 크루즈

다. 황 회장의 아낌없는 환대로 펼쳐지는 이 특별한 오찬은 회의장의 긴장을 털어내고 동문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평의원회의 진정한 피날레다. 이틀간 크루즈의 무대가 되는 이 호수는 미네소타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각별한 의미를 지니온 곳이다.

미네소타를 처음 방문하는 동문이라면 Lake Minnetonka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지만, 이 호수는 미네소타 사람들에게 단순한 ‘큰 호수’가 아니다. 다코타 수(Sioux)족의 언어로 “큰 물(Big Water)”을 뜻하는 이 호수는 총 면적 14,500에이커에 37개의 만(bay)과 31개의 수로(channel)가 복잡하게 얽혀 무려 114마일의 해안선을 품고 있다. 단일한 호수라기보다 섬, 만, 수로가 이어진 수상 미로에 가깝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수로가 좁아지며 양편에 나무가 가까워지고 다시 수로가 열리며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이 반전이 몇 번이고 반복되는 것이 Lake Minnetonka 크루즈를 단순한 호수 유람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유다.

이번 크루즈를 함께하는 AI & Alma’s Charter

Cruises는 1956년 이래 Lake Minnetonka 최대 규모의 럭셔리 크루즈 선단을 운영하며 Twin Cities 최고 크루즈 업체로 선정된 곳이다. 크루즈 선상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수변을 따라 늘어선 저택들이다. 육지에서는 수목과 울타리에 가려 그 일부밖에 보이지 않던 길디드 에이지의 대저택들이, 배 위에서는 보트하우스와 선착장까지 포함한 전체 면모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실내 다이닝과 탁 트인 선상 갑판을 자유롭게 오가는 탑승객들 앞에는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애피타이저부터 연어, 윌아이 등 정성껏 손질한 메인 요리, 한 조각씩 정성껏 담아낸 디저트 케이크까지 이어지는 풀코스 와 맥주, 와인, 칵테일 등을 갖춘 선상 바가 기다린다. 평의원회 회의장에서는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동문들 간 자연스레 오가는 것, 그것이 이 크루즈가 평의원회 공식 일정과는 또 다른 걸로 기억될 이유가 될 것이다. 크루즈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약 3시간 일정으로 운영된다. ‘만 개의 호수의 땅 (Land of 10,000 Lakes)’이라 불리는 미네소타가 아니라면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세계적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특별 음악회

6월 27일(토) 본회의가 막을 내린 저녁에는 특별 음악회가 마련된다.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음대 84·Indiana University) 교수와 피아니스트 이소정(음대 84·Judson University) 교수가 함께 한다.

이경선 교수는 차이콥스키(Tchaikovsky) 국제 콩쿠르, 쾨엘리자베스국제 콩쿠르 등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입상한 연주자로, 서울대, 피바디 음악원,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인디애나 대학교 제이콥스 음악대학 도로시 스타링 바이올린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소정 교수는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 이런 틴트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 다

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저드슨 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음악회는 세 곡으로 구성된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Spring) F장조 1악장이 음악회의 문을 연다. 이어지는 생상스(Saint-Saëns)

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Introduction and Rondo Capriccioso, Op. 28)는 우아한 도입부에서 시작해 점점 화려한 론도로 달려가는 바이올린의 기교적 매력이 압축된 레퍼토리다.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곡은 김한기의 「고국의 봄」(Spring of Home Country, Op. 159A)이다. 이국 땅에서 삶을 일궈온 동문들에게 고국의 정취를 전하는 이 곡이 음악회의 끝을 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루 종일 이어진 본회의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를 가까이서 마주하는 저녁은 그 자체로 이번 평의원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다. 미주 각지에서 모인 동문들이 같은 선율을 함께 듣고 그 여운을 나누는 이 시간이 평의원회를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해줄 것이다.

글=임동근(농생대 14)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피아니스트 이소정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평의원회 참가 문의

- 이메일: contact@snuaa.org

- 전화번호:

612-280-7589 (총무국장 임동근)

- 미주동창회 홈페이지

(참가신청 페이지)

호텔 온라인 예약

1. 아래 URL 접속

<https://www.choicehotels.com/reservations/groups/BH88C7>

2. 상단에 체크인·체크아웃 날짜 및 투숙 인원

(Guests) 수 결정

3. 객실 유형 선택 (1 King Bed 또는 2 Queens

Beds, 1박 \$129)

4. Booking Summary 화면에서 Book Room 클릭

5. 투숙객 정보 및 결제 수단 입력 후 예약 완료

호텔 전화 예약

-(952) 215-3970

공항 교통편

호텔은 공항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이며, 호텔 셔틀버스와 우버·택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뉴욕 동문들. 조수미씨 주변의 젊은 동문들은 이날 조씨와의 Q&A 시간을 갖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조언을 들었다.

‘자랑스러운 동문’ 조수미와 뉴욕 동문들의 만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음대 81)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고, 그의 눈부신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서울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Double Tree Hotel)에서 ‘Diva Sumi Jo with SNU Alumni’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카네기홀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끝난 조수미 데뷔 40주년 기념 독창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마련되었다. 뉴욕 서울대 동창회 김병순 회장(사회대 82), KMF(Korean Music Foundation) 정경희 회장(음대 82), 서울대 음대 동창회 윤자영 회장(음대 89) 등이 주축이 되어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결실이다.

120여 명의 동문이 집결한 이날 행사는 1부 만찬에 이어 2부 공식 행사로 진행되었다.

오프닝을 맡은 윤자영 음대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조수미 님의 40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닌 수많은 감동과 이야기로 채워진 아름다운 여정이었고, 그의 노래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의 순간마다 늘 함께해 왔다”며 귀한 만남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병순 회장의 환영사와 KMF 이사장인 에드워드 강(사대 60) 동문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정경희 동문의 조수미 소개와 함께 ‘자랑스러운 동문’ 감사패 증정식이 거행되었다.

스페셜 스피치에 나선 조수미 씨는 1981년 서울대 캠퍼스에서의 추

선후배 120여 명 모여 데뷔 40주년 기념 축하 정상에 오르기까지 예술 인생 공유하며 감동 2000년대 학번 후배들 무료 초청해 Q&A도

억을 회상하며 1학년만 마치고 유학길에 올라야 했던 서울대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동문으로 따뜻하게 환대해 주고 귀한 감사패까지 마련해 준 자리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스피치를 통해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털어놓았다. 무역업에 종사했던 아버지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분이였다. 조수미 씨가 17세 되던 해, 아버지는 런던 출장길에 무작정 코벤트 가든을 찾아가 디

렉터를 만났다. “내 딸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대에 설 수 있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당시 디렉터는 코웃음을 쳤으나,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조수미 씨는 보란 듯이 코벤트 가든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으로 하여금 글로벌한 꿈을 꿀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전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공유했다.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하루 8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시켰고,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으나, 훗날 그것이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자 헌신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조씨는 2006년 4월,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 독창회를 앞두고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려 했으나,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이며, 아버지도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그는 결국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공연 마지막 곡으로 아버지가 생전 가장 아꼈던 곡 중 하나인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는데 노래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무대를 마쳐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홀로 이겨내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그의 인생사가 전해질 때, 참석



(왼쪽부터) 조수미씨와 셀카를 찍고 있는 음대 동기 송란씨. 윤리나(음대 21) 동문이 제2의 조수미를 꿈꾸며 질문을 하고 있다. 데뷔 40주년 기념 독창회를 공동 주최한 KMF 에드워드 이사장 부부와 함께한 조수미씨.



(왼쪽부터) 조수미씨와 뉴욕 동문들과의 만남 행사를 성공시킨 김병순 동창회장(맨왼쪽)과 윤자영 음대회장이 '자랑스러운 동문' 감사패를 받은 조수미씨와 함께했다. 조수미와의 만남에 참여한 동문들은 이날 조씨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바쁘기도 했다.

➔ 한 동문들 사이에서는 몽클한 감동이 번졌다.

조 씨는 본인의 커리어를 넘어 후배 양성에 대한 각별한 열정도 드러냈다. 현재 그는 프랑스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Sumi Jo 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 를 통해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세계 무대로 배출하는데 힘쓰고 있다.

3부에서는 동문 선후배 간의 격식 없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설적인 성악가와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던 젊은 후배들은 선배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동창회 역시 이번 만남이 조수미 씨의 뒤를

잇고자 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0년대 이후 학번 동문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하고, 20여 명을 무료로 초청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다.

줄리아드에서 수학 중인 베이스바리톤 김선진(음대 17) 동문은 유럽 커리어 쌓기에 대해 질문했고, 조수미 씨는 한국 젊은 성악가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독려하며 답했다.

제2의 조수미를 꿈꾸는 윤리나(음대 21) 동문이 “40년 전으로 돌아가 지금의 내 나이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고 묻자, 그는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여행과 독서 등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

해 즐기라” 고 조언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활동 중인 박종현 동문은 본인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법을 질문했고, 조수미 씨는 무대 위에서 최고의 소리를 구현해내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진솔하게 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천부적인 재능 뒤에 가려진 치열한 노력이 오늘날의 ‘디바 조수미’ 를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선배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배들의 열정, 그리고 조수미 씨의 진심 어린 답변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서울대 동문 공동체의 결속력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병순 회장을 비롯해 이진구, 김해암, 고애자, 한윤미, 에드워드 강, 우규환, 권정덕, 김승호, 조상근, 조남천 동문 등이 후원금을 전달했고 강병승 동문 부부와 박수형 동문 부부, 박종현 동문이 스태프로 수고했다.

뉴욕 동창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젊은 후배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들을 초청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글=윤자영(음대 89)
뉴욕동창회 음대 회장

조수미 데뷔 40주년 기념 카네기홀 공연 공동 주최한 KMF는 재능있는 젊은 한인 음악가들의 ‘카네기홀 등용문’

정경희 동문 9년째 회장, 이사장은 에드워드 강 동문
백혜선, 양성원, 데이비드 김 등 40년간 70여 명 데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기념 카네기홀 공연을 공동 주최한 KMF(한국음악재단)는 재능있는 젊은 한인 음악가들을 발굴해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을 열어주고 이들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비영리 음악단체다.

현재 에드워드 강(사대 60) 동문이 이사장, 정경희(음대 82)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1984년 뉴욕 공연을 마친 백건우씨 제안으로 선배 음악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이래 지난 40여 년간 70여 명의 음악가가 KMF의 지원을 통해 뉴욕 데뷔 무대를 가졌다. 피아니스트 김대진, 백혜선, 손민수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강동석,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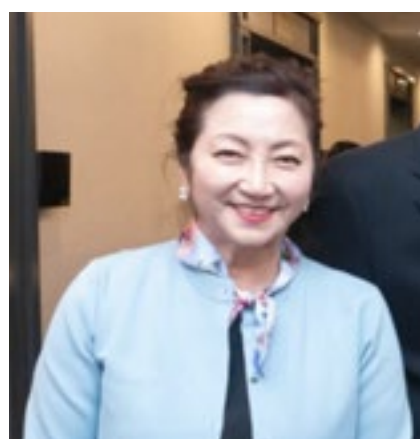
이비드 김, 캐서린 조, 알리사 박, 첼리스트 양성원, 비올리스트 리처드 오닐 용재 등 한국 클래식계를 상징하는 음악인들이 KMF를 거쳐갔다.

최근에는 세계 오페라계의 라이징 스타 소프라노 박혜상을 성공적으로 데뷔시켰다.

세계 정상급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는 KMF 창단 멤버인 김태자씨와 강호 줄리아드 음대교수가 주도해 창단했으니 사실상 KMF가 배출한 가장 성공적인 연주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말 3대 회장에 취임한 정경희 동문은 뛰어난 기획력을 발휘하며 10년 가까이 재단의 제2전성기를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후배들의 꿈을 이뤄주는 일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지



정경희 KMF 회장

만 정 동문 역시 성공한 성악가 출신이다.

맨해튼 음대 석사 시절 델라웨어 밸리 오페라(Delaware Valley Opera)와 필라델피아 마티네 뮤지컬 클럽(Matinee Musical Club of Philadelphia) 등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후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브롱크스 오페라 등 많은 무대에 서며 활발히 활동했다. 정 동문의 남편 김석영(S.Y. Kim) 변

호사는 뉴욕·뉴저지 최초의 한인 판사 출신으로 두 사람은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정 동문은 과거 미주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1989년 미주동창회 후원으로 동부와 서부를 오가는 전 미주 순회 공연을 했는데 뉴저지 공연을 보러 오신 시부모님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과의 만남을 적극 권하셨다” 며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으니 미주동창회, 뉴욕동창회가 우리 부부의 중매쟁이가 된 셈” 이라고 말한 바 있다.

KMF는 최근 한국메세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후원을 유치하는 등 ‘K-클래식의 세계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0년 전 선배 음악가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KMF가 이제는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한국 클래식의 미래를 함께 일구는 든든한 가교로 도약하고 있다.

“노년 스포츠로 비행 만큼 짜릿한 것도 없습니다”

경비행기 조종하는 남가주 이병성(공대 74) 동문

cleared to take off runway 25.” 활주로 위로 기체를 밀어 넣으며 속도를 높이자 어느새 비행기는 가볍게 하늘로 솟구쳤다. 지난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5분, LA 국제공항 인근의 호손 공항에서 4인승 세스나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파일럿은 이병성(공대 74) 동문. 앞좌석에는 한효동(공대 58) 선배가 동승했다.

“Hawthorne Tower, N1998R, request left downwind departure runway 25.” 콜사인을 대며 관제탑에 이륙 허가를 요청하자 곧바로 응답이 돌아왔다. “November 1998 Romeo,

“부인도 함께 오시면 좋았을 텐데요.” 넉넉히 묻자 한 선배가 대신 말을 받았다. “이 친구는 진짜 ‘부부 일심동체’ 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제야 아차 싶었다. 이 동문은 10여 년 전, 부인인 이정아 수필가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 이식해줬다. 그런데도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며 웃으며 근육을 보여준다.

겨울이면 경비행기를 타고 맘모스 마운틴, 박베어, 멀리 유타까지 날아가 스키를 탄다고 했다. 혼자 갈 때는 뒤에 산악자전거까지 싣는다. 그야말로 만능 스포츠맨이다.

이륙한 지 2분쯤 지났을까. 방금 떠나온 호손 공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도시 한복판에 길게 뻗은 활주로가 낮설고도 기이하게 보였다. 고도를 묻자 5,500피트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샌타애나의 존 웨인 공항 상공을 가로질러 가려면 최소 5,000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끝없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도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정해진 항로와 고도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비로소 ‘하늘에도 길이 있다’ 는 말을 실감했다.

5,000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LA는 한 쪽의 수채화 같았다. 바다는 흰 포말 하나 없이 잔잔했다. 왜 이 바다를 태평양이라 부르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다.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뻗은 도시는 멀리 흰 눈이 쌓인 샌게이브리얼 산맥 능선에 닿아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오션사이드(Oceanside). 남쪽방향의 5번 프리웨이에는 차량들이 꿈틀대듯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이 시간대라면 자동차로 최소 세 시간은 걸릴 거리다. 그러나 하늘길로는 45분이면 충분하다고 이 동문은 말했다.

소음이 커 대화는 헤드셋을 통해 이뤄졌다. 속도를 묻자 “에어 스피드는 시속 130마일, 그라운드 스피드는



관제탑과 교신하고 있는 파일럿 이병성 동문(오른쪽)과 동반 탑승 한효동 동문. 박용필 동문이 뒷좌석에서 취재하고 있다.

파일럿 라이선스 취득 후 500시간 넘게 비행
겨울이면 유타 등지로 날아가 스키 즐기고 와
클럽 가입해 골프 비용으로 공동 비행기 이용
“하늘에서 내려다본 LA는 한쪽의 수채화 같아”

는 115마일”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에어 스피드는 공기 속에서의 상대 비행 속도이고, 그라운드 스피드는 지상 기준 속도다.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속도는 서로 다르다.

경비행기를 타보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과킹장에서 있던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조금 겁이 났다. 기체가 꽤 낡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년 된 비행기냐고 물었다.

“아마 50년은 넘었을 겁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 동문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웃으며 말했다. “비행기는 기체 제작연도를 묻는 게 아니라 엔진 나이를 봅니다. 이 엔진은 2년도 안 됐어요. 거의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비행 전에는 이른바 ‘pre-flight inspection’ 이 필수다. 연료와 엔진 오일 점검을 비롯해 확인해야 할 항목이 무려 30여 가지나 된다. 매뉴얼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오션사이드 공항이 가까워졌다. 라디오에서는 각종 비행 교신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영어를 못하면 조종하기 힘들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항공 용어만 알면 쉬워요. 내가 알아야 할 정보만 캐치하면 됩니다. 전부 다 알아들을 필요는 없어요.”

잠시 후 기체는 오션사이드 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공항에서 우버를 타고 피어로 이동해 ‘\$100 햄버거’ 를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동문이 파일럿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은 2009년. 지금까지 비행 시간은 5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시 비행기 값이었다. 그러나 이 동문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했다. 개인이 비행기를 소유하면 유지비가 상당하고 관리도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클럽에 가입한다고 한다.

이 동문이 속한 곳은 A&E 플라잉 클럽. 회원은 약 50명, 비행기 네대를 공동으로 운용한다. 가입비는 1,000달러. 이후에는 비행시간, 즉 엔진이 돌아간 시간만큼 비용을 낸다. 시간당 약 120달러다. 세네 명이 함께 타면 왕복 비행 비용이 1인당 10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골프 한 번 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드는 정도다.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길도 여러 가지다. 비행학교에 등록하거나 개인 교습을 받아도 된다.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비행시간 40시간만 채우면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

클럽 회원 대부분은 유럽계 이민자들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경비행기 조종이 일종의 스포츠처럼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한인은 거의 없지만, 진취적인 성격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호손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4시가 가까웠다. “자동차 운전보다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내 말에 한 선배가 맞장구를 쳤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거운 거 들 일도 없고.” 이 동문이 웃으며 말했다. “노년 스포츠로 비행만큼 재미있고 짜릿한 것도 없습니다. 다음엔 우리 애리조나로 기(氣) 받으러 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도나(Sedona)는 정말 황홀합니다.”

하늘길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박용필(문리대 66·편집고문)



이륙에 앞서 기체 점검은 필수. 이병성 동문이 매뉴얼에 따라 30여 가지를 체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5천피트 상공에서 본 LA 전경. 바둑판처럼 펼쳐진 도심이 장관을 이룬다.

“손주의 ‘오 마이 갓’ 뽀뽀에 35년 노고 눈 녹듯 사라졌죠”

뉴욕 이희만 동문, 세 번째 한영시집 출간
미 의회 도서관과 포에츠 하우스에도 소장

뉴욕의 이희만(간호대 70· 영문 명 크리스티나 신) 동문 시인이 세 번째 한영 시집 《꽃들의 혁명(The Revolution of Flowers)》을 출간했다.

이 동문의 시집 《꽃들의 혁명》은 뉴욕의 유서 깊은 문학단체이자 출판사 ‘크로스컬추럴 커뮤니케이션스(Cross-Cultural Communications)’와 LA의 ‘해외문학’이 공동 출간했으며 미 의회 도서관 현대 시 아카이브에 등재되고 맨해튼에 있는 포에츠 하우스(Poets House)에도 소장될 예정이다.

통유리 너머로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포에츠 하우스는 미국 최고 권위의 시(Poetry) 전문 도서관으로 이곳에 시집이 놓인다는 것은 시인의 시적 성취와 작품성을 공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등단해 1992년 첫 시집 《Island to Island》를 세상에 내놓고 시인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5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두 번째 시집 《Metaphor of Water》 이후 25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은 아주 오래 묵혀낸 결과물입니다.

긴 시간 묵묵히 시를 써 내려오며 비로서 저만의 색깔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 시집이 의회 도서관과 포에츠 하우스에 소장돼 독자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이 동문은 그동안 뉴욕 주류 시 단체에 합류해 반즈앤노블 서점이나 공공 도서관, 플러싱 타운홀 등지에서 열리는 시 낭송회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또한 국제계관시인연합(UPLI) 펴

버로 해외 세미나에도 참석해 국제적인 문학 교류의 끈도 놓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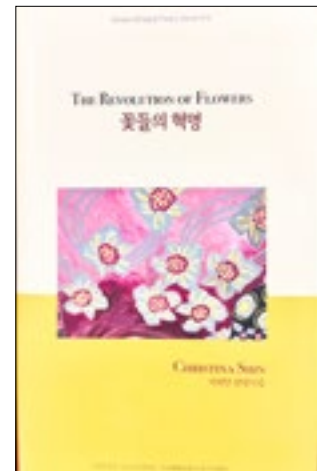
미주 한인 문단의 원로이자 ‘해외문학’ 발행인인 조윤호 시인은 이희만 시인을 소개하는 글에서 <사과>라는 시를 예로 들며 “성경 속 사과의 이미지와 후회 없는 유혹의 상징적 표현을 담아낸 아름다운 서정시”라며 “이토록 뛰어난 서정시를 쓰기 위한 시인의 깊은 고뇌와 고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동문은 “3년 전 어느 겨울날, 8살 처 손주가 할머니가 하는 일에 호기심을 보여 제가 쓴 한영시 두 편을 보여줬는데 그걸 읽더니 ‘오 마이 갓!’ 하며 제 볼을 꺼안고 뽀뽀를 해줬다”며 “어린 손주가 나의 시를 읽고 나를 이해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 지난 30여 년 지난했던 영시 작업의 노고가 여름 햇살에 얼음 녹듯 시원하고 상쾌하게 녹아내렸다”며 웃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시가 완성되는 것은 작가가 시를 쓸 때가 아니라 한 명의 독자가 시를 읽고 감동하는 그 순간의 불꽃같은 부딪침에서 완성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의 시도 어느 독자에게는 그런 불꽃같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990년 ‘시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희만 동문은 1992년 국립 시 도서관(National Public Library of Poetry) 공모 시 부문에 당선돼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25년 넘게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의 시집 《꽃들의 혁명(The Revolution of Flowers)》은 현재 아마존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나는 둥그러지기를 희망한다

이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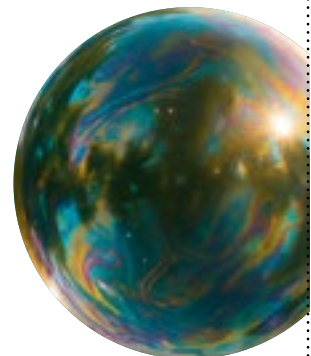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과일처럼 세상의 모든 눈물처럼 내 몸은 둥그러지기를 희망한다. 농익어 농익어서 슬금슬금 단물 뱉어내는 열매처럼 사과처럼 둥그러지기를 나는 희망한다. 올림픽구장에서 침묵의 첫 순간을 깨고 굴러 나오던 굴렁쇠처럼 나는 구르기를 희망한다. 허허롭던 유년의 들판도 굴러보고 뛰어보고 자갈투성이 청년의 폐허도 파 보고 세우면서 나는 회전하기를 희망한다.

둥그러지기를 희망한다.

모든 세상의 열애처럼

모든 세상의 슬픔처럼

나는 둥그러지기를 희망한다.



I Hope to Be 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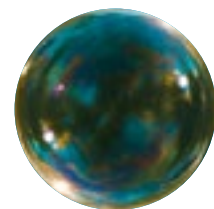
Like the world's every fruit and every tear, my body, to be round I hope. Like an overripe fruit, clandestinely spitting sweet juice, to be round I hope. Like the hoop in the Olympic stadium, breaking the first moment of silence, unfurling, to unfurl I hope. Rolling and running in the empty open fields of childhood, digging into and building the pebbled ruins of youth, to rotate I hope.

To be round I hope.

Like every passionate love in the world,

Like every sadness in the world,

I hope to be round.



무한한 상상, 담대한 도전, 새로운 미래

서울대 80돌 기념표어·엠블럼 공개

모교가 2026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기념 표어와 엠블럼을 공개했다. 모교는 지난 2월 25일 “개교 이후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80주년 기념 표어와 엠블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념 표어는 ‘무한한 상상, 담대한 도전,

새로운 미래(Boundless Imagination, Bold Innovation, New Horizons)’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확정됐다.

표어에는 창의적 상상력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서울대의 비전을 담았다. 기념 엠

블럼은 디자인학부 이장섭(산업디자인97) 교수 연구팀이 제작했다. 세 개의 원형 그래픽을 중심으로 구성된 디자인으로, 원들이 서로 결합하며 숫자 ‘80’을 형상화한다. 확산되는 점 형태의 원은 ‘무한한 상상’을, 중첩된 동심원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도전’을, 방사형 무늬는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세 가지 조형 요소가 변주되며 서울대가 지향하는 ‘

지성의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엠블럼은 모션그래픽과 로고플레이 등 영상·디지털 매체 활용을 고려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기념 엠블럼은 서울대 대표 홈페이지와 UI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학내외 행사와 각종 홍보물, 온라인 콘텐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토레스 델 파이네 트레킹의 끝자락 라구나 토레스 호수 앞에 선 서울대 문리대 산악회 친구들. 권봉성 동문과 남궁원, 김남수, 조경석, 이홍진, 노용국 동문 등 6명이 함께 했다. 뒤로 보이는 세 개의 뾰족한 화강암 봉우리가 바로 토레스(탑)다. 해를 때 저 봉우리들이 주황색으로 불타듯 빛나는 장면이 유명하다. 앞의 에메랄드빛 호수는 빙하수다.

권봉성(문리대 64) 동문, 팔순 산친구들과 파타고니아 100km 트레킹

문리대 산악회 함께한 60년 지기 등 동문 6명
‘팔순 청년’의 기개로 천혜의 비경 100km 완주
존재 몰랐던 여동생과 50년만의 극적 상봉도

남가주 권봉성(문리대 64) 동문이 문리대 산악회 시절 함께 산을 누볐던 60년 지기들과 여든의 나이를 잊은 채 파타고니아 토레스 델 파이네(Torres Del Paine) 100km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며 오랜 우정과 산사나이의 기개를 과시했다.

이번 파타고니아 트레킹에는 권 동문(지질학과)과 동기인 김남수(천문기상학과·토론토), 조경석(식물학과·LA) 동문을 비롯해 남궁원(물리학과 61·서울), 이홍진(인대 73·서울), 노용국(공대 76·서울) 동문 등 6명이 함께 했다.

파타고니아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마추픽추 잉카 트레일과 더불어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꼽히며 등산인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가보기를 꿈꾸는 트레커들의 성지다. 아르헨티나의 피츠로이(Fitz Roy)에서 시작해 칠레의 토레스 델 파이네까지, 안데스산맥의 거친 등줄기를 따라 국경을 넘는 이 길은 대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암봉과 태고의 빙하가 어우러져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펼쳐낸다.

권 동문은 “지난 2월 7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파타고니아의 신비로운 산길 100km를 오르내리면서 그곳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졌다”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60년을 함께한 산친구들이 곁에 있고, 눈앞엔 신이 빚어놓은 듯한 절경이 펼쳐져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는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권 동문은 “산악회 시절, 주말과 방학마다 암벽을 타며 한줄에 몸을 묶고 생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이 나이에 도 여전히 청년의 마음으로 하루 평균 16~17km의 산길을 걸었다”며 “거센 바람과 급경사 돌길을 넘어

마침내 라구나 토레스 호수 앞에 있을 때 모두가 깊은 감격에 젖었다”고 전했다.

권 동문은 인터뷰 말미, 이번 여정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로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 여동생(?)과의 극적인 상봉 사연을 들려줬다. 사건의 시작은 LA에 사는 큰딸의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었다.

큰딸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자신이 각자 DNA 분석을 의뢰했는데, 분석 결과 두 사람이 ‘사촌관계’로 나왔다고 경위를 물어왔다. 그 순간 권 동문의 머릿속에는 50여 년 전 아버지가 들려줬던 고백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유명 수학 강사였던 아버지는 무정자증인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당신 아들처럼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을 갈 만큼 영리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여인의 염원에 정자를 기증했던 것. 이후 버지니아의 여성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확인하면서 줄리라는 여동생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다.

줄리는 생모의 바람대로 영특하게 자라 서울대학교를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MBA 취득 후 현지 유명 회사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었다. 평소 탕고에 매료돼 매년 2~3월이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찾는다는 소식에 권 동문은 기꺼이 현지에서 동생과의 재회를 자처했다.

권 동문은 “탱고의 선율이 흐르는 거리를 함께 걸으며, 50년의 시간을 점프해 가족과 같은 정답을 나눴다”며 “삶의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은 듯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레스 델 파이네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2884m) 페인 그란데(Paine Grande)에 오른 권봉성 동문. 페인 그란데 산의 거대한 암벽과 그 아래 펼쳐진 호수가 어우러져 파타고니아 트레킹의 정수로 꼽힌다.



(왼쪽부터) 1965년 지리산 원정에 나선 문리대 산악회원들. 파타고니아 트레킹을 함께 한 권봉성, 조경석 동문도 있다. 문리대 산악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2024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ECB) 트레킹을 한 권봉성 동문, 김남수, 조경석 동문이 함께 해 해발 5643m 칼라파타르에 올랐다.

청사초롱 불 밝힌 전통 혼례, 장기남 동문이 신랑? 아니 집례였다

22년 헌신한 시카고 한인문화원을 위해서라면...

시카고의 장기남(문리대 62) 동문이 초례상과 청사초롱, 기력아범의 모습이 담긴 한국 전통 혼례식 풍경 사진을 보내왔다. ‘미국에서 전통 혼례를? 혹시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을 색다르게 치르신 걸까?’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장 동문은 신랑이 아니라 혼례를 이끄는 집례(주례)였다.

“지난해 봄부터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전통 혼례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80여 벌 준비돼 있어 취향껏 골라 입을 수 있고, 드넓은 야외 정원에 정자도 있어 피로연과 폐백도 올릴 수 있어요. 혼례식과 폐백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결혼식 진행을 위한 인력까지 지원해 우리 한인 2,3세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멋진 전통 혼례식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집례를 맡은 장기남 동문은 시카고 한인문화원 창립자겸 명예회장이자. 그에게 한인문화원은 말그대로 ‘산고 끝에 얻은 자식’ 과 같은 존재다.

시카고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원 건립을 위해 그는 추진위원장을 맡아 15만 달러를 선뜻 기부한 것은 물론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직접 3개월간 한인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받은 주급과 팁도 모두 건립 기금에 보탬다.

이러한 헌신에 힘입어 총 250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고 마침내 7년 만인 2011년 6월 개관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이 발병해 두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은 한국 정부가 설립한 LA나 뉴욕의 문화원과 달리 동포들의 정성 어린 기금으로 세워진, 우리 한인들을 위한 문화·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향



지난 3월 7일 시카고 한인문화원에서 열린 전통 혼례식에서 집례를 하고 있는 장기남 동문(가운데).

한복 80여벌에 폐백·인력까지 완벽 지원
마지막 사명 ‘안정적인 재정 자립’ 꿈꾸며
왕복 84마일 마다않고 지금도 봉사 열정

한 서울대 동문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팍팍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기도 하구요. 제가 초대 회장을 맡은 이래로 줄곧 우리 동문들이 회장직을 이어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건립 추진부터 지금까지 22년째 품어온 자식같은 존재인데, 앞으로 3년만 더 봉사하려 합니다.”

여든을 넘긴 지금도 그는 집에서 왕복 84마일에 달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은 문화원을 찾는다.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매일같이 그 거리를 오간다. 특히 전통 혼례식의 집례는 그가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봉사 중 하나다. 돈은 돈대로 들면서 남편을 죽을 고비로까지 몰아넣었던 문화원 일이라면 “이를 갈던” 부인 김승주(간호대 69) 동문도 이제는 “어느 도시도 이런 일을 해내지 못했는데 당신이 좋은 일을 했다” 며 그렇게 원망하던 마음을 풀었다.

특히 2024년에는 400석 규모의 복합 문화 공연장인 비스코 홀을 개관하면서 고품격 음악회와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수용하며 명실상부한 시카고 한인 사회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사랑받고 있다.

재정위원장을 맡은 장 동문은 문화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

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봉사 사명으로 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짓고 운영하는 LA나 뉴욕 문화원은 연간 예산이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시카고 문화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10만명이 찾아오는데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운영비를 전적으로 자력 감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절반만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문화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큼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정부에 문화원 건물을 헌납해도 좋으니 운영 예산의 절반을 뒷받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을까. 장 동문은 “아직 정부로부터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며 짙은 아쉬움을 전했다.

시카고 한인문화원은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현지인들까지 아우르는 7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K-팝 댄스 스튜디오, 풍물학교 올림, 세종학당 한국어 강좌 등 한인 차세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는 것은 물론 전시 갤러리와 구한말 조선의 유물을 보존한 박물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 또한 사물놀이, 관소리, 승무 등 전통 예술 공연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고 설날과 추석에는 민속 축제를 개최해 한국의 멋과 맛을 현지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장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75년 미국에 이민 와 시카고에서만 50년을 살며 시카고 한인회장(2009~2011)을 역임하는 등 시카고 한인사회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홀마크(Hallmark) 카드 전문 매장을 5개까지 늘린 성공한 사업가로 2015년 마지막 남은 매장을 정리하고 은퇴했다.

템플대 최종무 교수, ‘평생 공로상’ 수상

국제금융·경영학계 석학... 40년 후학 양성 헌신

필라델피아 지역의 원로 동문인 최종무(상대 63) 교수가 최근 평생을 몸담아온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 경영대학으로부터 ‘평생 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 을 수상했다.

이번 공로상은 최 교수가 국제금융 및 국제경영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탁월한 연구 업적과 학문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었다. 시상식은 템플 대학교 경영대학 연례 교수회의의 현장에서 거행되어 동료 학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최종무 교수는 1969년 도미하여 한

국의환은행 뉴욕지점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뉴욕대학교(NYU)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템플 대학교에 안착하기 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체이스맨해튼은행(Chase Manhattan Bank)에서 국제경제 전문가(International Economist)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템플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최 교수는 약 40년 동안 부교수와 정교수를 거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특히 국제금융 및 국제경영·전략 분야의 석



최종무 교수가 템플대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좌교수(Laura H. Carnell Professor of Finance)로서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지난 2025년 8월 정년 퇴임했다.

필라델피아 지부 김영석 회장은 “최 동문의 이번 수상은 한인 학자로서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쾌거” 라고 전했다.



원고모집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양: 500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contact@snuuaa.org

시카고 한인 사회의 큰 별, 구경희(의대 59) 동문 별세

평생을 보건 의료와 한인 복지 위해 헌신 ... 동창회에도 각별한 애정 쏟아

시카고 지역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보건 의료 발전에 평생을 바친 구경희(의대 59) 동문이 지난 3월 12일, 일리노이주 엘진(Elgin)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별세했다. 향년 86세.

구 동문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해군 공중보건의로 3년간 복무한 뒤 1968년 도미해 일리노이 마소닉 의료 센터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보스턴 VA 병원에서 펠로우십을 마쳤다.

그는 엘진 내과 의료진의 일원으로 32년간 재직하며 서면 병원과 세인트 조셉 병원(St. Joseph Hospital)에서 환자들을 돌봤다.

특히 그는 세인트 조셉 병원에 폐 질환 유닛을 창설해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평생을 헌신적인 진료와 탁월한 의술로 봉사



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면 병원의 중신 이사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의 업적은 의료 현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구 동문은 언어 및 문화적으로 소

외된 한인 노인들을 돕기 위해 1987년 고 김현규(의대 47 졸업) 선배, 동기인 이광선, 김길중 동문 등과 함께 '시카고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해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을 맡으며 시카고 내 한인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시카고 노인복지센터는 2007년 한울 종합복지관(Hanul Family Alliance)으로 이름을 바꾸고 서비스를 확대하며 시카고와 주변 지역의 한인,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희망의 등불로 자리잡았고 이 과정에서 구 동문의 아들인 금융인 데이비드가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이사장에 합류하며 주류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

데이비드 구씨는 13대 이사장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리더십과 든든한 후원 활동에 대한 공로로 2021년 AFP(

자선전문가협회)로부터 '올해의 신흥 자선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구 동문은 한울종합복지관 뿐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지원과 성 토마스 모어 성당 활동을 통해 문화와 신앙 공동체 발전에도 앞장섰다 또한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커 1999년에는 시카고 동창회 회장으로, 2014년에는 골든클럽 회장으로 헌신했고 이용락 제6대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평소 여가 시간에는 골프와 바둑을 즐겼으며,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사랑한 낭만파이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61년을 함께한 부인과 함께 글리 클럽(Glee Club)에서 노래하며 전 세계를 여행하는 활기찬 삶을 살았다.

순두부로 미국 사로 잡은 이태로(법대 56) 회장 별세

LA서 '북창동 순두부' 창업, 미 전역에 12개 매장 일궈

한식의 세계화를 이끈 북창동 순두부(BCD) 창업주 이태로 회장(법대 56)이 지난 3월 8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부인 이희숙 씨와 함께 북창동 순두부를 창업해, LA 한인사회를 넘어 미 전역에 순두부의 맛을 알린 한식 전도사로 평가받는다. 부부가 함께 일군 브랜드는 미국에서 한식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2020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데 이어 이번에 이 회장마저 별세하면서 북창동 순두부는 창업 1세대의 시대를 마감하고 2세대 경영 체제로 완전히 넘어 가게 됐다.

이 회장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외식업에 뛰어들었다. 서울 영등포에서 함흥냉면집을 운영했는데, 당시 "대한민국 관공사 가운데 그의 냉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법조계에 돌 정도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부부가 미국에 진출한 것은 1996년이다. 세 아들의 교육을 위해 LA로 이주한 뒤, 이 회장 부부는 다시 한 번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LA 한인타운 7가와 버몬트에 북창동 순두부 1호점을 열어 순두부와 함께 1인분 돌솥밥, 누룽지, 송농을 제공하



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초창기에는 새벽 2시면 부부가 직접 다운타운 야채시장을 찾아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며 식당을 운영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은 빠르게 성과로 이어졌다.

1997년 웨스턴에 2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1999년 가든그로브, 2000년 LA 월서 등 남가주 주요 지역으로 매장을 확장했다. 2006년에는 유명 김치 브랜드 하선정 김치 공장을 인수하며 사업 기반을 넓혔다. 같은 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북창동 순두부가 한국 음식 세계화의 성공 사례로 선정되기

도 했다. 2008년에는 뉴욕 맨해튼에 지점을 열어 동부 시장에도 진출했다. 현재 북창동 순두부는 미국 12개 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직원 수만 800명이 넘는 중견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 언론도 부부의 성과를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음식이 이제 K-팝과 함께 미국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 중심에 북창동 순두부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북창동 순두부의 본점은 LA 월서점이다. 약 1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보유해 주변에서는 고층 빌딩 재개발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고객 편의가 우선"이라는 창업주의 철학에 따라 이 부지는 지금도 넉넉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북창동 순두부의 CEO는 이 회장 부부의 장남 이승세(에디) 씨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UCLA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으나,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별세와 부친의 투병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을 맡게 됐다.

이태로 회장은 평생 한식의 가능성을 믿고 미국 사회에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문화를 알리는 데 헌신했다. 그의 별세로 한식 세계화를 개척한 1세대 외식인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명복을 빕니다

이재덕 (법대 60)
3월 별세. 향년 84세.

고인은 1988년 코스모 부동산을 설립해 뉴저지 한인 부동산 업계 대부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봉사활동에 기여해 2005년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동부부동산중개인협회로부터 '올해의 중개인'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최영구 (상대 61)
3월24일 별세. 향년 82세.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시간주 웨인 스테이트대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회계법인 김&리 파트너를 거쳐 한미은행에서 부행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행장대행을 역임했다.

이후 구 태평양은행(현 PCB뱅크) 및 퍼스트스탠다드 은행(현 오픈뱅크) CFO를 거쳐 구 유니티은행 사외이사도 역임하는 등 남가주 한인 금융권에서 재무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었다.



빛나는 지성에서 든든한 동행으로 함께 발전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contact@snuuaa.org

로봇과 인공지능 ... 세계적 로봇 박사 명강의 '귀에 쏙'

SNUAA 3월 포럼

인공지능이 몸을 얻을 때: 휴머노이드와 물리적 지능의 부상



데니스 홍
UCLA 기계공학과 교수
RoMeLa 로봇연구소 소장

세계적 로봇 박사인 UCLA 데니스 홍 교수가 SNUAA 3월 포럼 강사로 나서 로봇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예술과 인간성까지 아우르는 3시간에 걸친 훌륭한 강연을 펼쳐 참석 동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홍 교수는 지난 3월 14일 열린 강연에서 '로봇이란 무엇인가'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간을 위한 기술의 방향성까지 폭넓게 풀어냈다.

데니스 홍 교수는 한국 항공우주학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고 홍용식(공대 기계공학과 51) 박사의 아들로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 모델로 아버지를 꼽으며, 어린 시절 기계를 분해하거나 엉뚱한 실험을 해도 이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과학적 호기심을 격려해준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교수는 로봇의 핵심을 “센스(Sense), 플랜(Plan), 액트(Act)” 세 가지로 설명하며, 센서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컴퓨터로 판단하며, 액추에이터로 실제 움직여야 비로소 로봇이라고 정의했다.

홍 교수는 이어 최근 화두인 'AI와 피지컬 AI(Physical AI)'의 변화도 설명했다. 과거에는 센서, 판단, 제어가 각각 분리된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학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AI가 강력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문제를 AI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UCLA 로멜라(RoMeLa) 연구소가 개발한 다양한 로봇 소개였다.

홍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르테미스(Artemis)'를 소개하며, 이 로봇이 빠른 속도와 강한 균형 감각, 자율보행 능력을 갖춘 차세대 인간형 로봇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르테미스는 장애물을 넘고, 상자를 들고, 카트를 밀며, 야외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아르테미스는 로봇축구 국제대회 로보컵(RoboCup)에서 UCLA 로멜라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홍 교수는 “2024년 로보컵에서 독일 강호 님브로(NimbRo)를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며 학생들과 함께 이룬 성과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로봇이 아니라 학생들”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데니스 홍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ARTEMIS는 202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2024 로보컵에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ARTEMIS는 키 4피트 8인치, 무게 85파운드, 초당 최대 2.1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점프하며 걸을 수 있다.

16개 이상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로보컵 우승 흥미진진하고 열정적인 강연에 동문들 감동 사람과 사회적 맥락 이해해야 진짜 기술 완성

할리우드와 협업한 비화도 소개했다. 넷플릭스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Electric State)>를 연출한 루소 형제와 손잡고 영화 속 로봇 캐릭터를 실제로 구현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이제는 로봇을 단순히 움직이게 하는 것을 넘어,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 내내 홍 교수는 “기술은 연구실 안에서만 완성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찾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실제 현장과 사람, 사회적 맥락

을 이해해야 비로소 진짜로 유용한 기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경험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는 하나의 로봇’보다, 특정 임무를 더 잘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리 로봇 프로젝트도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홍 교수는 한국의 ‘배달의민족’과 협업 중인 ‘프로젝트 요리(Project Yori)’를 소개하며, 사람이 하는 요리를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요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조리 시스템이라

고 설명했다.

강연 말미에 홍 교수는 특히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AI가 대세라고 해서 동역학(動力學), 수학, 제어공학 같은 기초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기계 학습은 기계가 배우는 것이지만, 공학자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답을 아는 것은 연구가 아니라 숙제”라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도전하는 태도가 진짜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UCLA 연구실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가 창의성의 원천이라고 소개했다. 학생들과 함께 새벽까지 로봇을 춤추게 하며 실험하는 영상으로 강연을 보여준 그는 “스트레스와 위계보다, 열려 있고 즐거운 환경에서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마지막으로 ‘완전자율 가정용 로봇’이 언제 상용화될 지에 대한 질문에 “2년 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쉽지 않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로봇 회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주최하고 워싱턴주 동창회가 주관하는 SNUAA 포럼은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서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포럼은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도 공개해 시애틀 지역 한인 언론인 SeattleN은 매달 포럼 소식을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위 글은 SeattleN에 소개된 내용이다.

영화 '스타워즈'에 매료된 소년, 세계적인 로봇공학자로



데니스 홍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

데니스 홍 교수는

할리우드의 맨즈 차이나이즈 극장에서 영화 '스타워즈'를 처음 본 일곱 살 소년은 깡통 모양의 R2-D2와 사람을 닮은 C-3PO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년은 부모님께 선언했다. “저는 커서 로봇공학자가 될 거예요.” 그날의 순수한 다짐을 현실로 바꾼 소

년이 바로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다.

현재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메커니즘 연구소(RoMeLa) 소장인 그는 로봇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2007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젊은 과학자상 수상을 시작으로, 2009년 '포퓰러 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인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해 '타임'지 올해의 발명품에

선정되는 등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전했다.

그는 근래 들어 생성형 AI의 시대를 넘어, 지능이 물리적 실체를 갖는 '물리적 인공지능(Physical AI)' 연구에 전념하며 차세대 로봇 시대를 이끌고 있다. 또한 데니스 홍 교수의 지능에 대한 탐구는 공학의 경계를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세계적인 키네틱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며 로봇 기술을 예술적 매체로 활용한 솔로 전시를 준비 중이다.



(왼쪽부터) 2월28일 콘서트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에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유은주씨와 박성훈 지부 회장. 유씨는 두 차례의 콘서트를 통해 모금한 돈에 1000달러를 보태 예일대 드와이트홀 디렉터(가운데)에게 전달했다. 유씨의 집에 모여 콘서트를 즐긴 이웃 주민들.

노숙자 돕고 후배 키우는 홈 콘서트 ... “잘 끝냈어요”

커네티컷 지부를 창립한 고 유시영(문리대 68) 동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 반. 동창회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부인 유은주씨의 커네티컷 지부에 대한 봉사는 지금까지도 멈춤 없이 이어지고 있다.

“남편이 그렇게 애를 썼던 동창회인데, 그대로 흐지부지 흩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지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려던 것이었는데 아직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있네요. 동창회라는 곳이 결국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봉사해야 유지되는 곳인데 선뜻 나서서 사람이 없으니...”

지난 2월28일에는 예일대 음대에서 공부하는 동문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해 네 번째 콘서트를 열었다. 박성훈(자연대 91) 지부 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과 이웃 주민 등 3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유은주씨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가 끝난 후 박성훈 회장과 듀엣으로 찬양을 부르며 은혜로운 시간을 마무리했다.

커네티컷 고 유시영(문리대 68) 동문 부인 유은주씨
서울대 이름으로 예일대 드와이트홀에 1710불 기부

이에 앞서 지난 12월 27일 열린 세 번째 콘서트에서는 예일대 드와이트홀(Dwight Hall at Yale) 디렉터를 초청해, 두차례 연주를 통해 모인 후원금에 사재 1000달러를 더해 총 1710달러를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학생 자원봉사센터인 드와이트 홀을 통해 노숙자 구호 클럽인 YHHAP(Yale Hunger and Homeless Action Project)에 전달돼 그 의미를 더했다.

콘서트가 열린 유씨의 자택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거실의 상하층이 트여 천장이 높은데다 고 유시영 동문이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사모은 그림 30여 점이 곳곳에 걸려 있어 마치 격조 있는 작은 갤러리를 연상케 한다.

유씨는 연주회를 준비하는 학생 동문들을 위해 앞서 4명에게 각 2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정성 어린 비빔밥과 파전 등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까지 쥐어주며 정을 나눴다.

“학생들이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어 작은 음악회는 4차례 공연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동문과 이웃들은 예일대 음대생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즐기고, 현관 앞 모금함에 쌓인 성금은 서울대 이름으로 노숙자 지원에 쓰이며, 학생들은 소중한 연주 기회를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가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커네티컷 지부는 동창회 이름의 은행계좌가 없는 상태다. 이에 유씨는 지부 장학금에 쓰이기를 희망하며 미주동창회에 별도로 1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커네티컷 지부는 동창회 이름의 은행계좌가 없는 상태다. 이에 유씨는 지부 장학금에 쓰이기를 희망하며 미주동창회에 별도로 1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서울대가 뒤쳐져서야” ... 한정헌 동문, 골프대회 1500불 쾌척

연 · 고대보다 풍성한 행사 주문하며 후원
4월25일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서울대가 연 · 고대보다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 수요일 단독방에 올라온 문자 하나가 한정헌(치대 55) 동문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 임원이 연 · 고대 골프 토너먼트에 초청받아 참가한 뒤 후기를 올렸는데, 디너와 진행, 상품까지 푸짐해 서울대 행사와는 확연히 비교된다는 내용이였다.

그 글을 본 한 동문은 곧바로 양수진 남가주 총동창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체크한 장을 내밀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은 놀랍게도 1,500 달러였다.

“이렇게 큰돈을...”
양 회장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한 동문은 멋쩍게 웃었다. “이번 토너먼트에 보태 쓰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역시 서울대’ 라는 말은 해야지요.”

덕분에 올해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 골프 토너먼트는 한층 풍성해졌다. 대회는 4월 25일(토) 치노 힐스의 로스 세라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다. 한 동문의 후원으로 푸짐한 상품이 걸려 참

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신원에는 1만 달러가 걸려있다.

템플 시티와 이스트 LA 두 곳에서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한 한 동문은 5년 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은퇴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은 지인들과 라운딩을 즐길 만큼 골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의 골프 인생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1972년 현지 보건성의 초청으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그는 1977년까지 5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원주민들의 건강을 돌봤다. 군 복무 시절 베트남전에 파병돼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험 덕분에 동남아 생활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주말이면 대사관 외교관들과 교포들이 어울려 골프를 즐겼다. 하지만 당시 말레이시아에 티칭 프로가 있을 리 없었을 터. 한 동문은 ‘골프 황제’ 잭 니클러스의 교습서 ‘Golf My Way’를 구해 홀로 골프를 배웠다.

이 책은 스윙은 물론 클럽 선택, 코스 공략, 멘털까지 골프의 모든 것을 다룬



한정헌(오른쪽) 동문이 양수진 남가주 총동창회장에게 골프 토너먼트 후원 체크를 전달하고 있다

종합 교본이다.

니클러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 지금도 골프 레슨서의 고전으로 꼽힌다.

한 동문은 책에 쓰여있는 대로 스윙을 ‘흉내’ 내며 연습에 몰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싱글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 이후 한인 사회에서 독학으로 골프를 마스터한 입지전적 인물로 통하게 됐다.

처음 계약기간은 3년이었지만 말레

이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2년을 더 연장해 근무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을 신청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비자가 나와 미국행 길에 올랐다.

“제 로망은 ‘에이지 슈터’가 되는 겁니다. 이번 토너먼트에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총동창회 토너먼트를 앞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골퍼다운 설렘이 묻어났다



지난 3월 7일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2026년 뉴욕 골든클럽 신년 교례회에는 8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함께 모인 동문들.

‘황금빛 우정’ 나눈 2026년 뉴욕 골든클럽 신년 교례회

폭설과 한파로 회원 간 교류가 적었던 병오년 초의 강추위가 완화되던 지난 3월 7일, 뉴저지 포트리(Fort Lee)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DoubleTree Hotel)에서 80여 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뉴욕 골든클럽 신년 교례회’가 개최됐다.

홍종만 상임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일본 여행 계획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진행됐다. 김정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행사 보고와 투명한 회계 보고를 마쳤다. 2026년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야외 행사와 마스터클래스 강의 등 여러 골든클럽 행사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만남의 가교가 될 새 주소록 배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골든클럽 회보 우수 원고 수상자로 김광현 회원(‘히틀러가

폭설에 움츠렸던 동문 가족 80여 명 한자리 입학 연도별 좌석 배치로 ‘벽’ 허물고 교제 감동 준 음대 동문들 작은 음악회에 큰 박수

걸었던 불세출의 길: 그의 그림에 남겨진 꿈’)과 조달훈·조승자 회원(‘무작정 베트남 여행’)이 선정되어 기념 선물을 받았다.

축하 공연에서는 김희재, 김지유, 정지인 등 음악대학 동문들의 뛰어난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이어 아마추어 크라운의 코믹 매직쇼가 진행되어 모든 동문이 유쾌한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냈다. 경품 추첨(라플) 시간에는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각 가정에는 골든클럽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과 땅콩강정 등이 선물로 전달되며 행사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황주리 화가의 ‘시소에 앉은 두 마리 말’ 작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눈 소중한 만남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날 모임을 마친 뒤 김익성(상대 53) 동문은 “우리 골든클럽은 매 순간 청춘의 설렘을 느끼게 하는 매우 특

별한 모임”이라며, “혼자 치는 골프보다 함께 웃으며 걷는 라운딩이 더 즐겁고, 혼자 오르는 산보다 서로 손 잡아주며 오르는 능선이 더 아름답듯, 오히려 해도 우정이라는 끈으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서로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한 해가 될 것을 믿는다”는 후기를 전해왔다.

성기호(약대 57) 동문은 “이번 모임에서는 테이블 세팅(Table Setting)을 단과대학 별이 아닌 입학 연도 별로 하여, 모처럼 전공이 다른 동문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동창회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음대 동문들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명을 선사했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글·사진=골든클럽 제공

“부고 대신 들려온 반가운 소식” ... 경기여고 동창들도 달려왔다

박윤정(미대 63) 동문, ‘잠시 머물다 가는 삶...’ 개인전 성료

샌디에이고 박윤정(미대 63·사진) 동문이 지난 3월7일부터 4월4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샤토 갤러리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삶: 대자연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도예가인 박 동문은 샌디에이고 시티 칼리지에서 26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홍콩·미국에서 19회 개인전을 포함해 스미소니언 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뉴욕 현대공예미술관, 크로커 미술관 등 200여 회 이상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캘리포니아 USC / 퍼시픽 아시안 뮤지엄, 테네시주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호암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샤토 갤러리가 매년 개최해온 ‘한인 1세대 원로 작가 기획전’의 일환으로 오랜 작업을 통해 이어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로 주류 문화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박 동문은 수십 년간 주로 흙을 다루며 재료에 대



한 실험과 형태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전시회는 동문들 사이에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서울대 미대 동문뿐만 아니라 경기여고 동문 20여명이 그의 전시 소식을 듣고 미주 각 지역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근래들어 전해지는 소식의 대부분이 동문 부고인 상황에서 여전히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며 개인전을 연다는 소식은 동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불원천리 달려온 동문들 덕분에 전시장 안팎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찼다.



LA 샤토 갤러리에서 열린 박윤정 동문의 도예 전시회에 모인 남가주 미대 동문들이 박 동문과 그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아래 작품은 알래스카 방문에서 영감을 받은 설치작 '365 for One'. 비슷한 조각을 365일 동안 반복 제작한 작업으로 무한한 자연 앞에 선 인간 창조의 겸허함을 담고 있다.

바닷속 고래상어의 작고 귀여운 눈 보며 “안녕! 반가워”

윤정아(소비자학과 95) 편집위원의 멕시코 라파즈 여행기

코로나 가족의 의견이 모아졌다. 일주일 남짓의 시간 중 이동에 최소한의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에 캘리포니아 LA 공항에서 직항으로 2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멕시코 라파즈(La Paz)로 목적지를 정했다. 코르테스 해에 위치한 라파즈는 “평화”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를 끼고 있는 평온한 해안가 도시였다.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연말 휴가 일주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멕시

고래상어와의 조우

풍경을 바라만 보는 것도 좋지만 그 풍경 안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만 가능한 액티비티를 직접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터라, 라파즈에서 유명한 액티비티를 검색했다. 세 가지 추천된 액티비티 중 단연 1위는 고래상어(whale shark)와 함께하는 스노클링. 몸길이가 10미터가 넘는 지구상 가장 큰 바다생물이지만 플랑크톤만 먹고 사는 아주 운순한 거인인 고래상어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다.

고래상어들이 먹이를 먹으러 오는 길목인 라파즈 앞바다로 이동하는 배 안에서 구릿빛 건강한 피부를 가진 멕시코 가이드는 고래상어에 대해 설명했다.

“고래상어는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정답은 상어예요. 꼬리 지느러미가 수면과 평행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포유류인 고래지만, 고래상어는 지느러미가 수면과 직각이라 좌우로 흔들리는 어류거든요.”

설명을 마친 가이드는 배 난간을 밟고 올라서서 바다 수면에 비치는 고래상어의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다. 저 멀리 한 마리를 발견한 가이드는 선장에게 그쪽으로 배를 이동하도록 부탁한 뒤 우리에게 말했다.

“고래상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두 분, 왼쪽에 두 분, 꼬리 쪽에 한 분, 이렇게 다섯 명이 한 팀으로 함께 수영할 겁니다.”

배가 멈춘 지점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장착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가이드의 수신호를 따라 헤엄친 지 몇 분 뒤, 나의 왼쪽으로 거대한 고래상어의 등 무늬가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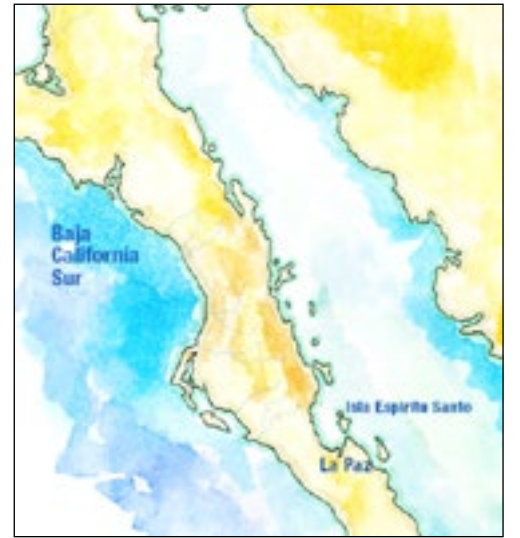
“아..!”

한눈에 담기 힘든 거대하고 기다란 생명체가 팔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짙은 회색의 등에 박힌 흰 점들과 줄무늬를 눈으로 따라가다가 고래상어의 작고 귀여운 왼쪽 눈을 마주했을 때는 웅장한 생명체와 교감을 나눈 듯 황홀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듯이 고래상어는 지느러미 밑에 바짝 달라붙어 따라다니는 작은 물고기나 양옆을 호위하듯 에워싸고 유영하는 사람들에게 개의치 않고 넓고 기다란 입을 크게 벌린 채 유유히 플랑크톤이 가득한 바닷물을 들이키며 앞으로 나아갔다. 광활한 바다 속 거대하고 무해한 고래상어와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이 신비로운 생명체가, 그 생명체를 품고 있는 너른 바다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라파즈 체험은 흥분이 식지 않는 거듭되는 감탄사로 마무리됐다.



멕시코 라파즈에서 체험 액티비티를 즐기고 있는 윤정아 동문 가족. 라파즈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남동쪽 끝자락에 있다.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위해 바쁘게 달려온 세월
평온한 해안가 도시 라파즈의 바다를 체험하며
걱정은 ‘마냐냐’ ... 바다사자야! 또 만나자”

새끼 바다사자와의 유회

다음 날은 라파즈의 유명 액티비티 중 두 번째인 바다사자(sea lion)와의 스쿠버 다이빙이 예정되어 있었다. 라파즈의 앞바다에 위치한 로스 이슬로테스(Los Islotes) 섬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큰 바다의 거친 풍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다가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 있어 포식자로부터도 새끼를 보호하기 좋아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바다사자들이 이 곳에 와서 새끼를 낳아 기른다고 한다. 연중 온화한 라파즈의 앞바다에서 주변을 탐험하는 새끼 바다사자들에게 스쿠버 다이버들은 반가운 손님이자 장난을 걸고 싶은 친구였다.

호흡기를 입에 물고 바다로 입수해 부력을 조절하며 바닥으로 내려가는 중 무언가가 내 편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발을 내려다보니 새끼 바다사자 한 마리가 내 편을 물어당기고 있었다. 살짝 다리를 흔들자 그녀석은 내 몸을 회오리처럼 휘감아 오르며 호흡기 호스도 살짝 물어보고 내 팔을 스쳐 지나갔다. 겁을 내기는커녕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침없이 다가오는 새끼 바다사자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

다. 단단하고 매끄러운 고무 같은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다.

잠수하기 전 배 위에서 가이드는 바다사자가 무언가 튀어나온 것을 물어보고 잡아당기며 노는 걸 좋아하니까 손가락을 퍼지 말고 주먹을 쥐고 다니라고 조언해 주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아들녀석은 망가진 빨간색 스노클 막대기를 바다사자 앞에서 흔들었다. 그러자 꼬리 부는 사나이를 덤석 따라 나서는 아이들처럼 새끼 바다사자 두 마리가 앞다투어 스노클 막대기를 낚아채려 했고 아들은 결국 턱힘이 제법 센 한 녀석에게 스노클 막대기를 빼앗기고 말았다. 막대기를 놓치 않으려는 아이와 빼앗아 달아나려는 바다사자의 모습은 마치 아이들 사이의 줄다리기를 연상시켰다. 강아지처럼 스스럼없이 다가와 장난을 치는 바다사자들을 보고 있노라니 어린 생명체들은 다 귀하고 눈부시다는 생각이 마음에 차올랐다.

3마일 해안 산책로 말레콘

마지막으로 추천된 라파즈의 액티비티는 모래언덕에서의 서핑이었지만 업체의 예고 없는 막판 취소로 아

쉬움을 남겨야 했다. 계획이 틀어져 버려 순간 불쾌함이 몰려왔지만 여행의 마지막을 우울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는 법. 인공지능이 알려준 바다생물 박물관을 찬찬히 구경하고도 시간이 남아 잔잔한 바다를 따라 늘어선 5킬로 가량의 말레콘(Malecón) 산책로를 걸었다.

바닷속에서 마주했던 고래상어와 바다사자를 비롯한 여러 바다 생물들을 거대하게 조각해 놓은 동상이 군데군데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진짜처럼 섬세한 동상과 푸른 하늘, 그보다 더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해안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멈춰섰다. 라파즈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즐기기 위해 멕시코식 해산물 샐러드인 세비체(Ceviche)와 타코, 마가리타를 주문했다. 틀어진 일정이 반드시 내 기분까지 비틀어 버릴 필요가 없음을, 오히려 그로 인해 생긴 여유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일상으로

멕시코 도시에서 자주 접한 단어 중 하나는 “마냐냐(Mañana)”였다. 스페인어로 “내일” 또는 “아침”이라는 뜻인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독특한 여유와 낙천주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마냐냐 정신은 걱정을 내일(Mañana)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누리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설명을 접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빨리빨리 숨가쁘게만 살아온 지난 20여 년의 미국 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철학이었다.

라파즈의 바다처럼 잔잔하고 느긋한 삶의 태도는 바로 조급함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거대한 고래상어와 유쾌한 바다사자와 더불어 살며 빛어낸 문화가 아닐까. 언젠가 다시 라파즈로 돌아와 고래상어와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이제는 부모가 되었을 개구쟁이 바다사자의 새끼들과도 다시 한 번 장난을 쳐보고 싶어진다.



라파즈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며 고래상어를 만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해 바다사자와 놀 수 있는 체험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사진=멕시코 관광 사이트



(왼쪽부터) 산 카를로 오페라 극장 지붕 중앙부에는 조각군이 있어 극장의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금색 장식과 천장화,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6층으로 쌓아 올린 말발굽 모양의 객석, 정중앙 왕실 박스의 화려한 조각들은 18세기 나폴리 왕국의 영광을 보여준다. 김영석 동문이 극장을 찾은 날에는 베르디의 희극 걸작 '팔스타프'가 무대에 올려졌다

나폴리의 영광, 산 카를로에서 베르디가 건넨 위로

김영석(음대 74) 동문의 유럽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 방문기

대학 신입생 시절, 두꺼운 서양음악사 교재 사진으로만 접하던 ‘유럽 최초의 오페라 하우스’.

교수님의 열편 강의 속에서나 존재하던 그 전설적인 공간,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Teatro di San Carlo)’의 붉은 벨벳 의자에 몸을 묻었을 때, 나는 비로소 무언가 깨달음을 가졌다. 역사는 읽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임을.

1737년 부르봉 왕조의 카를로 3세가 단 8개월 만에 완공한 유럽 최초의 이 오페라 하우스는 밀라노의 라 스칼라보다 수십 년 앞선 ‘오페라하우스의 원조’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야를 압도하는 금색 장식과 천장화, 눈부신 샹들리에, 그리고 6층으로 쌓아 올린 말발굽 모양의 객석, 정중앙 왕실 박스의 화려한 조각들은 18세기 나폴리 왕국이 향유했던 영광의 시간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

스페인 펠리페 5세의 아들이자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의 직계 후손인 ‘카를로스(Charles)’는 당시 막 나폴리를 장악한 상태였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나폴리를 유럽 최고의 수도로 탈바꿈시키길 간절히 원했고, 당시 막대한 7만 5천 두카트를 투입해 완성한 이 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그의 문화적 패권 선언이었으며 나폴리 왕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다. 그리고 이후 유럽 전역에 세워질 대형 오페라 하우스들의 건축적 청사진이 되었다.

당시 나폴리는 명실상부한 유럽 음악의 수도였다. 하이든과 글루크 같은 거장들조차 산 카를로 무대에 서는 것을 인생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방문한 날, 이 유서 깊은 무대를 장식한 것은 주세페 베르디가 인생의 황혼기에 남긴 마지막 유일한 희극 오페라 ‘팔스타프(Falstaff)’였다. 평생 비극의 심연을 파고들었던 거장 베르디가 여든의 나이에 세상을 향해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뜻밖에도 거대하면서 하찮은 웃음이었다.

과거 3,200석에서 현대적 기준에 맞춰 1,386석으로 줄어든 객석은 무대 위 성악가들의 섬세한 소리까지도 무난히 전달했다. 나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하며 모든 출연진이 합창하며 외치는 “세상은 모두 한낱 장난이랴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릿광대였지!(Tutto nel mondo è burla. L'uom è nato burlone!)” 였는데, 가사의 핵심은 사는것이 결국은 속고 속이는 소동 끝에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초연한 인생관을 담고 있는데, 각 성부가 얽히고설켜며 거대한 웃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fuga 형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합창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외쳐 퍼질 때 만감이 교차하는 전율이 일었다.

수많은 왕조가 바뀌고 통일의 격변을 겪어온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명성과 부를 다 가질수 있었던 노거장 베르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결국 “인생이란 그런거야, 모두 웃어 넘겨 버리자!”는 유쾌한 달관이었다는 사실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위로였다. 나폴리의 푸른 밤, 산 카를로의 황금빛 불빛 아래서 나는 음악사를 넘어 ‘인생’이라는 커다란 연극의 한 페이지를 넘겨 보았다.

로시니와 도니제티가 일군 당대 꿈의 무대서 베르디의 희극 걸작 ‘팔스타프’ 공연 보며 노거장이 남긴 마지막 합창에 전율을 느끼다

로시니와 도니제티가 일군 당대 꿈의 무대서 베르디의 희극 걸작 ‘팔스타프’ 공연 보며 노거장이 남긴 마지막 합창에 전율을 느끼다

나폴리가 낳은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1901년 고향 관객의 야유에 상처 입어 “다시는 이곳에서 노래하지 않겠다”며 눈물 섞인 맹세를 남기고 떠난 재미있는 이야기도 이 화려한 금빛 벽면 어딘가에 스며있을 것이

다. 내가 방문한 날, 이 유서 깊은 무대를 장식한 것은 주세페 베르디가 인생의 황혼기에 남긴 마지막 유일한 희극 오페라 ‘팔스타프(Falstaff)’였다. 평생 비극의 심연을 파고들었던 거장 베르디가 여든의 나이에 세상을 향해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뜻밖에도 거대하면서 하찮은 웃음이었다.

과거 3,200석에서 현대적 기준에 맞춰 1,386석으로 줄어든 객석은 무대 위 성악가들의 섬세한 소리까지도 무난히 전달했다. 나에게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하며 모든 출연진이 합창하며 외치는 “세상은 모두 한낱

장난이랴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릿광대였지!(Tutto nel mondo è burla. L'uom è nato burlone!)” 였는데, 가사의 핵심은 사는것이 결국은 속고 속이는 소동 끝에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초연한 인생관을 담고 있는데, 각 성부가 얽히고설켜며 거대한 웃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fuga 형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합창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외쳐 퍼질 때 만감이 교차하는 전율이 일었다.

수많은 왕조가 바뀌고 통일의 격변을 겪어온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명성과 부를 다 가질수 있었던 노거장 베르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결국 “인생이란 그런거야, 모두 웃어 넘겨 버리자!”는 유쾌한 달관이었다는 사실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위로였다.

나폴리의 푸른 밤, 산 카를로의 황금빛 불빛 아래서 나는 음악사를 넘어 ‘인생’이라는 커다란 연극의 한 페이지를 넘겨 보았다.



(왼쪽부터) 나폴리가 낳은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의 흉상. 산 카를로 극장 '팔스타프' 포스터 앞에 선 김영석 동문. 극장과 마주 보고 있는 쇼핑 아케이드 갤러리아 움베르토 1세. 1890년 완공돼 당시 상류층은 산 카를로 극장에서 오페라를 관람하기 전후에 갤러리아에 모여 사교 활동을 즐겼다.

젊은 히틀러가 프로이트의 진료실 소파에 누웠었다면?



천양곡
(의대63·시카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아돌프 히틀러는 33세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20세기 초 한때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Wien, 비엔나)의 어느 거리에서 서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곳에 살았다.

1909년 당시 프로이트는 50대 원숙한 의사로 정신분석의 토대가 된 무의식의 개념에 전념하며 그 유명한 ‘꿈의 해석’ 책의 저술을 끝냈고,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에서 출생한 히틀러는 미술대학에 입학하려고 빈에 머물렀던 때다.

히틀러는 운이 나빴는지 실력이 모자랐는지 두 번이나 입학시험에 낙방하고 돈마저 바닥이 나자 홈리스 신세가 되어 자신이 묵고 있는 노숙자 쉼터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을 게다. 그 두 사람이 빈의 어느 길거리나 광장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우연히 스쳐 갔을지도 모른다.

히틀러는 화가의 꿈을 접고 독일로 건너가 정치가로 변신했다. 그는 탁월한 웅변과 선동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후 마침내 정권을 차지해 독일의 권력자가 되었다. 1939년 히틀러는 고향 나라인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뒤 빈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유대인 출신 프로이트는 히틀러가 자신이 저술한 책들을 모두 불태우는 등 반 유대인 정책에 밀려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떠나 유럽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누구에게나 좋았다 나빴다 하기를 반복하는 삶의 파도 속을 헤쳐나가는 여정인 듯 싶다.

나는 2016년 음악의 도시 비엔나(빈)에 10일간 머물며 여러 곳을 구경했다. 여행 며칠 되는 날 프로이트가 환자를 진료했던 집의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히틀러와 프로이트가 같은 시공간에서 마셨던 공기의 흔적을 내 혀와 속 깊이 들여 마시고 왔다. 프로이트와 히틀러의 얘기는 나의 삶 속에도 들어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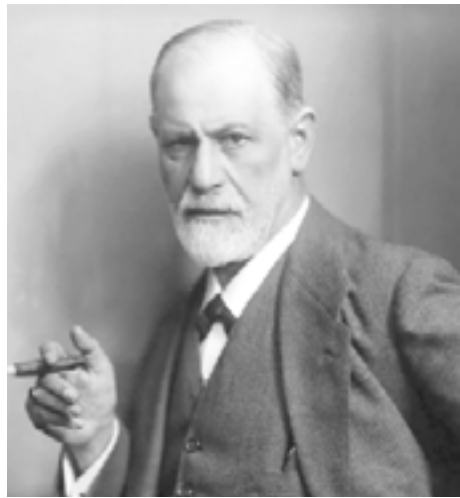
심리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 여러 영역의 사람들은 물론 이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미 정보기관까지 히틀러의 성격에 대해 연구 조사했다.

혹자는 히틀러를 반사회적, 자애적, 동성애적 성격, 혹자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우월감과 과대망상 속에 빠진 성격자로 단정지었다. 하지만 히틀러를 가까이 보좌했던 사람들은 히틀러를 내성적이고, 조심스럽고, 소심하고, 섬세하며,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는 등 자신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았다.

정신분석 의사 칼 융에 의하면 인



20대 히틀러(왼쪽)와 50대 프로이트는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다.



1909년 빈의 거리서 스쳤을지 모를 두 사람

‘꿈의 해석’을 막 끝낸 정신분석의 거장은

좌절한 화가 지망생 히틀러에게 뭐라고 했을까

간의 마음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표현되는 페르소나와 무의식 속의 밖에 나타나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히틀러처럼 이중성의 성격을 지니고 사는 것이다.

히틀러에 관한 대부분의 영화는 군중들 앞에서 팔을 치켜세우고 강한 신념과 거침없는 말로 군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선동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히틀러 자신만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정치가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주는 행동이다. 그의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점은 간단히 언급할 뿐이다. 곁에 나타난 히틀러의 자기 확신과 과장된 우월감은 상처 받은 내면의 자아를 지키려는 방패 역할에 불과했을 뿐 속 마음은 항상 외로움, 불안, 분노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결과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성을 감추려고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듯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했을지도 모른다.

프로이트 역시 겉으로 보기에 잘 다듬은 수염, 조용한 음성, 침착한 태도를 지녔지만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 욕망, 억제 같은 방어의식이 깊숙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자신의 정신을 분석하기도 했던 것이다.

자신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의 4가지 기본 가정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존재. 둘째, 인간의 모든 정신 행동에는 우연이 없다는 인과관계의 정신 결정론. 셋째, 현재는 과거, 특히 아동기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과거의 중요성. 넷째,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쾌락 제일 주의다. 따라서 정신분석은 자신의 마음 고통과 쾌락의 충돌성을 이해하려는 자기 성찰이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신의 무의식을 인정하고 내면의 갈등을 견디려는 용기도 필요하다.

히틀러 같이 자기 신념과 망상에 사로잡힌 심리적 구조는 두 사람의 만남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만약 젊은 시절의 히틀러가 프로이트의 진료실을 찾아와 정신분석을 요청했다면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프로이트는 진료실의 소파에 누어 있는 히틀러에게 먼저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라’고 했을 것이다(자유연상 기법). 그다음 히틀러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어린 시절에 엄격했던 아버지와의 동일화 과정의 결함과 온순한 어머니와의 병적인 애착 관계 때문에 생겨난 성적 갈등을 분석했을 것이다(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이슈). 또한 젊은 날의 실패와 좌절, 인정 받지 못한 열등감이 쉽게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함을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대인관계 형성 결핍). 그리고 무의식 속의 충동성, 공격성, 파괴성 등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했을 것이다(무의식적 투사 경향).

역사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가정은 역사보다 더 관대하고 자유롭다. 세상의 기준에 못미치고, 성공의 시간표에서 밀려 났던 당시의 젊은 히틀러가 프로이트의 말을 들었다면 후에 그가 집단적 이념을 광기로 이끌었던 역사의 방향은 다른 길로 향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전전두엽이 폭력, 공포, 학살을 연민, 사랑, 포용으로 탈바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질문은 지금도 한 번쯤은 해 볼만한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회백
(의대 55·시애틀)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20세기에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사망으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된 그는 대통령직을 싫어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되자 그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했고 여론이나 인기에도 굴하지 않는 대통령이였다. 맥아더의 해임은 그 한 예이다.

트루먼은 슬하에 단 하나의 딸을 두고 있었다. 가끔 백악관에서 피아노 건반도 두드리며 등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외동딸 마가레트를 오페라 가수로 성공시키는 것이 꿈이었다. 마가레트는 상당한 성악 교육도 받았고 이곳저곳 관현악단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려 나갔다. 그러나

음악 비평가들은 그녀가 오페라 가수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대통령의 딸이라 심한 비평을 피하는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1950년, 워싱턴 포스트의 음악 평론가 폴 흄이 “마가레트는 무대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가수이기는 하나 노래는 썩 잘 부르지 못한다. 그녀는 상당한 시간을 음악에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적인 경지에 도달하기엔 멀었다”라고 씬으로써 이 전통을 깨뜨렸다.

이 논평은 대통령을 극도로 노하게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그의 어릴 때부터의 절친인 공보 비서 찰리 로스가 심장마비로 급서한 날에 실린 이 기사는 그의 노여움에 부채질을 더



1956년 트루먼 대통령과 딸 마가레트가 함께 한 사진.

했다. 트루먼은 흄에게 “나는 언젠가 당신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새 코가 필요하게 될 것이오. 또 멍든 눈을 위해 많은 소고기점(beefsteak)이 필요할 것이오” 하는 편지를 써서 직접 우체통에 넣었다.

보통 대통령의 편지는 비서가 점검하고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화가 치민 대통령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부쳤으며 이는 워싱턴 포스트의 흄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흄은 이 편지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하기를 원했으나 발행인이 불허했다. 그러자 흄은 여러 동료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중 하나인 워싱턴 뉴스(Washington Daily News)가 즉시 기사로 내버렸다. 이렇게 되자 워싱턴 포스트도 자신들이 출처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국제적인 화제로 등장해 “작은 백악관 스캔들”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언론에게 폭언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동시에 딸을 꿈쩍이 아끼는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다시 묻게 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박평일
(농대 69·워싱턴DC)

AI는 인간처럼 직접 살아가며 체험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유와 감정의 구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공지능과도 꽤 깊은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그 ‘나’는, 과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본질이 먼저인가, 실존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끝없이 되풀이되어 온 철학적 논쟁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텅 빈 머리,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

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프로그램하고, 또 편집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형성된 하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부모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자연환경, 다른 사회적 분위기, 다른 경제적 조건, 다른 종교와 교육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같은 유전자와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결국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나’는 이미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도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 만든 교육과 프로그램, 그리고 끊임없는 수정과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여전히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삶의 경험이 만들어 낸 지능이라면, AI의 지능은 경험이 아니라 언어가 만들어 낸 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몸의 통증을 겪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고통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이 늙어가는 쓸쓸함도 알지 못하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바로 그런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고픔과 아픔, 사랑과 상실, 희망과 좌절, 그리고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의식까지. 그런 실존적인 경험들이 커져 이 쌓이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깊

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문학은 바로 그 깊은 경험의 자리에서 걸어 올린 이야기들입니다.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작가가 살아가며 겪은 경험과, 그 경험 위에 더해진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 역시 작가의 삶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내면적 프로그램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을 직접 경험한 인간이 쓰는 이야기와 세상을 언어로만 배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경험이 만들어 낸 지능과 언어가 만들어 낸 지능이 서로 마주 서 있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묻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일까. 어쩌면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질문은 결국 인간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해하려 애쓰는 이 시대에, 정작 인간은 과연 인간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결국 다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오늘 아침 전달된 한 한국 작가가 쓴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글을 읽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인간은 인공지능을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이미지=제미나이3

“불행 중 다행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문성길
(의대 63)

절망과 어둠속 깊숙한 늪에 갇혀 있을 때 우리들 대부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생의 마감을 택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게 된다. 주위에서 안타깝게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보는 현실이 아닌가.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을 거의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줄로 여겨진다.

차 사고시 차에 심한 손상과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할 때 적어도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하면 차 사고는 아니란 못하니 분명 불행이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으니 다행(천만다행)이란 뜻이다.

한 집안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심한 우환

들이 생겼다면 안 생긴 것만은 못하겠으나 이보다 더 큰 우환이 생긴 가정보다야 다행이 아니겠는가. 물질만능 자본주의 사회, 특히 경쟁이 극도에 달한 곳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이민자들 가정의 가장들의 극심한 정신적 압박 속에 사업이 휘청거릴 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생 마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예를 다 열거할 수가 없으나 나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잠시 물러나 긴 숨 한번 내쉬고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여 봄이 어떠할까. 나는 이러할 때 두 시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대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1799-1837)의 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 즐거운 날이 오리니 왜 슬퍼하는가 / 마음은 앞날에 살고, 지금은 언제나 슬픈 것이니 /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나니 /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 절망의 나날 참고 견

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두 번째 미 여류시인 랜터 윌슨 스미스(1856-1939)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일부만 소개한다. “큰 슬픔이 거센 강 물결처럼 네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네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거운 짐,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 환희, 기쁨으로 근심걱정 없을 때 세속의 기쁨에 안주하지 말고 이 경구를 가슴에 품으라! 이 문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아닌가. 슬프고 절망적일 때는 격려의 말로, 명예와 영광과 기쁨의 절정 속에선 겸손과 경구의 문구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19-20세기 뉴잉글랜드 지역 여류시인의 시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니 우리 또한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다. 포기하지 말자!

“Free, free, free! 다시 홀로 배낭 여행을 떠난다”



박준창
(영문과 79·남가주)

여행은 즐거운 일이다. 준비 과정도 즐겁다. 나는 미리 짐을 다 한번 싸 본다. 짐을 싸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의 설레임도 귀중하다. 다음 여행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릴까? 여행 일자가 다가 오니, 설레임에 난 오늘 밤도 잠을 설칠 것 같다.

1. 왜 홀로 배낭 여행인가?

2023년 10월에 난생 처음으로 혼자, 배낭 여행을 했다. 남 프랑스로. 혼자 해외 여행도 처음이었고, 배낭 여행도 처음이었다. 유스호스텔 숙박도 처음이었고. 기대 수준을 낮추고 간 숙박 시설이 그렇게 낮은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다.

그때의 감흥과 즐거움이 지금도 남아 그 이후 난 계속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다. 왜 좋으냐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먹고, 자고, 놀고, 보는데,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가도, 아무리 마음 맞는 단짝 친구하고 가도, 어디 갈까? 어떻게 갈까? 무얼 먹을까? 늘 의논하고 의견의 일치를 봐야 한다. 혼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정말 freedom 그 자체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실수, 차질, 혼선, 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온전히 선택하고, 내가 온전히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Free, free, free... 그 흥분함과 자유, 다른 것과 바꾸기 어렵다.

왜 배낭여행인가? 싸고 기동성이 좋기 때문이다. 싸다는 점은 훌훌 떠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행은 비싸다. 더구나 해외 여행이라면, 더 더구나 유럽 여행이라면 더. 비싼 경비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다. 그러나 배낭 여행을 하면 싸진다. 돈 때문에 못 가던 곳을 갈 수 있게 해준다. 10일 정도면 비행기 값 합쳐 2천불 정도이다. 좋은 음식을 한두번 짬 먹어도 그 정도이다.

또한 식비가 아껴지는 것이, 매일, 좋은, 고급 음식을 먹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좋은 저녁을 먹을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는 입이 짧아 유럽의 고기 위주 음식이 내게는 안 맞다. 그런 이유에서도 나는 식비가 저



보스니아의 어느 시골 마을. 낡았지만 아름답고, 동네 촌로들이 읍내에 모여, 야외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은 정겨웠다.

먹고, 자고, 놀고, 보는데, 눈치 볼 필요 없고
10일 경비 2000불 정도, 쉽게 떠날 수 있어
이 엘리사 탁구의 기억, 이번엔 발칸반도로

절로 아껴진다. 그렇게 숙박비와 음식으로 아낀 돈을, 나는 한 두끼 고급 식사 비용으로 날려 버린다. 코펜하겐에서 나 혼자 150불 짜리 저녁을 먹었다. 여행 전체 숙박비의 반을 단 한 끼 식사로 날려 버렸다.

배낭 여행은 비행기 체크인을 할 필요가 없어 짐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 남들이 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유유히 공항을 빠져 나온다. 배낭 여행의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이다.

2. 나는 왜 그곳에 가는가?

또 떠난다. 이번에는 동유럽 하기도 발칸 반도. 그 중 3개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알바니아. 발칸 반도는 한때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었고, 기어코 세계 제 1차 대전이 촉발된 곳.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의 “라틴교” 라는 다리 위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됨으로써

비극적인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곳에 왜 가는가? 신비스럽기 때문이다. 2차 대전 후 냉전 때문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다음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여행이 어려웠던 곳. 60년대, 70년대, 한국인들은 동유럽은 고사하고, 해외 여행 자체가 어려웠다.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발칸 반도 나라들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고, 공산주의와 근접한 사회주의가 아니었던가?

60년대, 70년대의 한국에게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던 개념. 김일성이 유고 연방 지도자 티토와 만난 곳이 당시 유고 연방 소속이던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숫가 별장이었으니. 그렇게 유고와 알바니아는 한국인들에게 알려 지지 않았던 곳. 그러던 어느날 1975년 뜻밖의 기쁜 소식이 모든 한국인들을 환호하게 한다. 그 해 열렸던 세계 탁

구 선수권 대회. 어디에서 열렸냐고? 바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열렸다. 언제나 세계 최강이던 중국(그때는 당연 중국 아닌 중국이었다) 탁구를 꺾고,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던 것. 이 에리사, 정현숙이 대표팀 주축. 나이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어린 시절, 사라예보라는 도시 이름을 처음 듣고 “어떤 곳일까? 공산권 국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곳인데도, 운동 선수들은 공산권 국가에도 가네.” 그런 생각을 했었다. 막연히 언젠가가 보고 싶다는 희망과 함께.

말 나온 김에, 세르비아의 노비사드에서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는 걸 기억하시는지? 1981년도였다. 김택수를 주축으로 한 남자 대표팀이 은메달, 여자 대표팀이 동메달, 둘 다 다 역시 세계 최강 중국팀하고 맞붙어 남자는 결승, 여자는 준결승에서 패배. 하지만, 준수한 성적이었었고, 80년대 기세를 몰아 유남규의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었다.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도 내 여행 일정에 들어 있다. 대회가 열렸던 체육관을 찾을 수 있을까? 워낙 오래 전이라 기대는 않는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름답기 때문이다. 3년전 보스니아 여행을 했다. 그때 지나갔던, 강을 끼고 있던, 낡고 허름한 집들의 보스니아의 시골과 읍내 마을의 철철 넘치는 정겨움.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다. 유튜브로 본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자연과 도시 역시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을 직접 몸으로 즐기고 싶어 떠난다.

또 다른 이유? 물가가 싸다. 식비도 싸고, 호텔비도 싸다. 유스호스텔은 어느 나라나 싸지만, 이 나라들은 1박 호스텔 비가 20불-30불 수준. 1인 독방도 30불 수준이라,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에서는 1인실로 예약했다.

짐은 백팩 하나... 그것도 가볍게

배낭 여행의 요체는 신속성과 이동성이다. 짐이 가벼워야 한다. 배낭 여행의 특성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많이 걷는다. 짐이 무거우면 내동댕이 치고 싶다. 그래서 짐은 딱 하나여야 한다.

그것도 바퀴달린 캐리어는 불편하다.

유럽 길들은 자갈 길이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캐리어는 불편하다. 어깨에 매는 백팩이려야 한다.

그리고, 두 팔이 자유롭다는 것은 큰 편리성과 활동성을 의미한다. 백팩 무게 줄이기는? 간단하다. 적게 가지고 가야 한다. 가져가는 물품은 작고 가벼워야 한다.



맨 위 오른쪽은 전대같이 허리에 차는 것으로 소매치기 예방에도 좋고, 여권, 지갑, 썰카봉, 호루라기, power bank를 넣어 다니는 곳.

그 아래는 썰카봉. 하얀 슬라이퍼는 foldable. 납작해야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슬라이퍼 옆 그린 색이 초경량 day trip 용 배낭. 열어서 펼치면 됨.

오른쪽 옆은 Micro-fiber towel 인데, 유스호스텔에서는 수건을 돈을 받고 대여해 주는 경우가 많음. 한번 몸 닦기로는 괜찮고 빨리 마름. 슬라이퍼 아래는 소형 마우스. 소형 면도기. 전자 전기용품은 지퍼백에 담은 것이 투명하고 가벼워서 좋음. 투명한 세면도구 가방. 맨 아래 왼쪽이 크레딧 카드 정보 유출 방지용 금속 지갑. 오른쪽은 power bank. 맨 아래 오른쪽은 호신용 호루라기. 이렇게 해서, 노트북 컴퓨터와 배터리 팩은 포함하고, 약은 뺐 무게가 15 파운드. 유튜브를 보면, 짐 부피를 줄이기 위한, 진공백, 약 넣는 용기, 기타 작은 백이나 파우치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필요없음. 그런 것들도 하나 둘 많아지면 무게가 늘어 나고, 그다지 부피 줄이는 효과없음. 사용해 보았는데 번거롭기만 할 뿐이었음. 대신 옷을 돌돌 말면 좀 부피가 줄어 드는 듯.



샤인 기부.
당신이 만드는
빛나는 변화

You are my SNUshine!

미주에서 보내주신 마음, 바다를 건너 서울대에 닿았습니다.

서울대를 밝히는 가장 작은 움직임, 당신의 기부에서 시작됩니다.
블록 하나 하나를 쌓아가듯,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서울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샤인기부에 \$300이상(1회) 참여하는
후원자님께 웰컴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샤인 굿즈 자세히 보기
snu.or.kr/snushine

샤인 기부 참여하기
snu.or.kr/snushine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신청 는 기부액 으로 기부해 참여합니다.
연락처 후원금 액 수 정액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전쟁과 관련 동문들이 각기

야훼와 알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치르는 전쟁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는 보복인가, 사랑인가?”



김정현
(공대 68·필라델피아)

지금의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 야훼(여호와 또는 엘로아 Eloah)와 아랍인의 신 알라(Allah) 간의 전쟁(聖戰)입니다.

문제는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로 당한 만큼 갚으라는 계명을 주었고, 알라 역시 아랍인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똑같은 계명을 주었다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요. 이 두 신은 같은 신이니까요.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지요. 각자의 언어로

발음도 엘로아(엘라)와 알라로 비슷합니다. 하나님(개신교)과 하느님(천주교)같은 거지요.

이스라엘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무슬림의 조상도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구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은 그들이 믿는 신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선이고 악이나를 어떻게 따질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의 하나님을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엘라의 복수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모르는 신의 지시를 따라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엘(El)’ 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 이라는 새 이름은 이스라 + 엘 즉, 거르다는 뜻의 ‘이스라’ 와 신 ‘엘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로부

터 500여 년 지난 후,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신은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YHWH 야훼(여호와)’ 를 처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미국은 4년 동안 남북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노예 문제로 싸운 거지요. 그런데 이 전쟁도 사실은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노예제도를 찬성한 남쪽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야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예의 시작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당대의 의인, 노아가 아들 함에게 피부는 저주로부터 시작되었다며(창세기 9:20 - 27), 성경 곳곳에 있는 야훼가 이 노예제도를 허락하는 구절들을 들어서 노예제도를 지지했는데, 동시에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사고팔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려는 야훼의 명령(출애굽기 21:16)도 있거든요. 노예제도를 금하는 구절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성

경 말씀에 따라 싸운 거잖아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미 침례교에서 분리해 나간 교단이 오늘날 ‘바이블 벨트(Bible Belt)’ 라고 불리는 미 남부를 장악한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고 원수를 미워하며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마태 5:44)” 고 하십니다. ‘누가 네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라’ 는 말씀과 함께.

이 두 구절이 톨스토이를 비폭력 무저항주의자로 바꾸고 ‘What I believe’ 라는 책을 쓰게 합니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쟁취했지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를 따라 원수를 미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동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천
(치대 71·남가주)

전장의 눈이 된 '팔란티어'와 두뇌가 된 '엔트로픽

인공지능이 지휘하는 첫번째 대규모 전쟁



미국의 이란 침공은 전쟁사에서 인공지능이 대규모 전투에 활용된 첫 전쟁으로 기록될 만한 전환점이다. 이미지:제미니AI 3

영국 소설가 톨킨의 작품 ‘반지의 제왕’ 에 신비한 수정구슬이 나온다. ‘팔란티르’ 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구슬은 엘프어로 ‘멀리 보는 자’ 인데 우리말로 천리안(千里眼) 쯤 된다. 이 구슬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먼 곳의 일도 훤히 들여다 보인다. 해서 악의 군주 사우론은 이것으로 세상을 엿보고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세상을 지배하려한다. 이런 소설 속 이야기가 2003년 실리콘밸리로 옮겨왔다. 톨킨의 세계관에 유별나게 매혹된 사람, 페이팔 창업자였던 피터 틸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들인 방위산업체,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은행 등에 소설에 나오는 가상대륙 ‘가운데땅(Middle-earth)’ 의 이름들을 붙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가 있다. 피터 틸은 하버드 법대 동창 알렉스 카프와 의기투합해 팔란티어를 세웠다. CIA의 초기 투자를 받으며 출발한 이 회사의 첫 번째 고객 또한 CIA였다. 현대 팔란티어의 핵심 소프트웨어 이름이 무척이나 흥미롭다. 배트맨의 어두운 범죄 도시, 고담(Gotham)이다.

타격 우선순위부터 방공망 우회까지
AI 알고리즘이 데이터와 확률로 설계
대시보드엔 사람의 공포, 울음도 없어

이 시스템은 흩어진 위성 사진, 통신 감청 데이터, 드론 영상, 소셜미디어를 한데 모아 실시간으로 분석해 표적을 찾고, 위협을 예측하고, 작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그러면 또 다른 AI기업인 엔트로픽이 다음 일을 맡는다. 챗봇 클로드(Claude)로 알려진 이 AI 기업은 팔란티어가 종합한 방대한 문서와 정보를 읽고 요약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일이다. 팔란티어가 전장의 눈이라면, 엔트로픽은 그 눈이

본 것을 해석하는 두뇌인 셈이다.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클라우드를 정보 평가와 작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활용함으로써 알려져 있다. 옛날 중국에 제갈량이 있었다. 그는 직접 싸우지 않았다. 장막 안에 앉아 별자리를 읽고, 지형을 분석하고, 적장의 심리까지 계산했다. 수십 리 밖 전황을 손바닥 보듯 꿰뚫었다. 해서 오늘날 팔란티어를 두고 ‘디지털 제갈량’ 이라 부르는 이유다. 팔란티어도 직접 싸우지 않는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합해 지휘관에게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제시한다. 지난 주, 이란을 겨냥한 미-이스라엘 합동 공습이 시작됐다. 폭격기와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동안, 작전의 신경망은 서버실 안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어떤 시설을 먼저 타격할지, 방공망을 어떻게 우회할지, 어느 시각에 어느 방향에서 진입할지 등 그 모든 계산의 대부분을 AI가 맡았다. 앞으로의 전쟁은 더 그럴 것이다.

예전에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의 여론을 바꾸게 했던 종군기자들의 카메라가 사라진 그 자리를 AI의 눈으로 재편되고 드론, 위성, 열감지 센서 데이터가 고담 화면 위에서 합성된다. 전장은 하나의 대시보드가 되고 거기엔 공포도, 신음도, 우연히 잡힌 민간인의 얼굴도 없다. 단지 모든 것이 좌표와 숫자와 확률로 나타날 뿐이다. 이는 전쟁이 깨끗하고 단순해 보일수록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톨킨은 소설에서 ‘팔란티르를 들여다본 자들은 예외 없이 대가를 치렀다’ 고 경고한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메라맨은 할 수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수정구슬을 설계한 자가 누구인지를 잊는 순간,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양한 관점에서 글을 보내왔습니다. 동문들의 통찰을 담은 4편의 기고 글을 소개합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바빌론의 강가에서’

“어디서 오셨나요?”
 “페르시아(Persia)에서요.”
 “이란을 말씀하시나요?”
 “페르시아요.”



얼마전 시(어바인) 커뮤니티 센터 탁구장에서 만난 한 노부부의 짧은 대화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미국에 정착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는 그들은 작금의 전쟁상황 때문인지 끝내 자신의 고향을 ‘이란’ 이 아닌 ‘페르시아’ 라고 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고집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부부가 이란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호기심이 당긴 사람들이 몰려왔다. 기다렸다는 듯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물었다. 질문은 집요했고, 시선은 부담스러웠다. 노부부는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말했다. “천년 전까지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탁구장을 떠났다.

그 말은 엄밀히 말해 ‘천년’ 이 아니라 훨씬 더 먼 시간, 2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다. 고대 페르

시아와 유대 민족 사이에는 오늘날의 갈등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인연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있다. 1970~80년대 전 세계를 휩쓴 Boney M.의 히트곡 Rivers of Babylon. 경쾌한 디스코 리듬 속에 담긴 이 노래의 가사는 사실 구약성경 시편의 한 구절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평평 울었다.”

이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수’ (Babylon Captivity)라는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예루살렘

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다.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은 역사 속 가장 깊은 집단적 슬픔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 비극의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군주 키루스 대제다. 그는 바빌론을 정복한 뒤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다. 단순한 해방을 넘어 공적자금을 투입해 복구까지 도운 그의 정책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 차원의 ‘재건 지원’ 에 가까웠다.

그의 통치 철학은 런던 대영박물관에 보관된 ‘키루스 실린더’ 에 잘 남아 있다. 이 원통에는 종교의 자유, 문화적 자율성,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이 기록돼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정복자는 보통 자신의 언어와 종교를 강요한다. 그러나 키루스는 달랐다. 그는 다름을 인정했고, 강요 대신 공존을 택했다. 그래서일까. 미국의 건국 이념을 설계한 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나 이스라엘 초

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그를 존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할 만큼 아이러니하다. 과거에는 해방자와 은인으로 기억되던 두 민족이 오늘날에는 첨예한 대립의 축에 서 있다. ‘페르시아’ 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던 그 노부부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런 기억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속했던 문명이 한때는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물했던 나라였다는 기억.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된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갈등은 과연 서로를 지울 수 있는가.

키루스의 후예라 불리는 오늘의 이란과, 그가 해방시켰던 유대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두 나라가 다시 손을 맞잡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낭만일까, 아니면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일까.

탁구장 한켠에서 들었던 “페르시아” 라는 짧은 한마디가, 그날 이후 계속 귓가에 남는다. 그것은 단순한 지명어 아니라,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역사에 대한 조용한 호명이었기 때문이다. <문리대 66 · 편집고문>

21세기 이란 방공호 속의 ‘나에게’ ... 모쪼록 몸 보존하길



정훈택
(상대 61·필라델피아)

봄은 예정된 대로 내 곁을 찾아와 눈을 즐겁게 해 주지만, 내 귀는 밤낮으로 흥한 소식만 듣는구나.

저 먼 이란이라는 나라의 피난민 방공호 속에도 ‘나’ 같이 섬세하고 나약한 사람이 왜 없으랴.

내 기억력의 한계는 한날 6·25밖에 없지만, 그곳 이란이라는 나라의 전쟁은 한국전의 수천 배를 넘을 테니... 아, 이란의 내 분신 같은 사람아, 너는 거기 숨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내 어린 시절 나는 너의 나라 옛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의 꿈을 먹고 자랐단다. 왕자님과 공주가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타고 사랑을 나눴으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은 수많은 보물을 굴속에 감춰 두고 “열러라 참깨” 라는 암호가 네 열쇠였지.

21세기 이란 방공호 속의 ‘나’ 에게, 같은 시대 떠나라 미국에 사는 ‘나’ 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숨만 쉰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아무쪼록 몸 보존하기 바란다. 네 부모 형제도 모두 무사하길 기도한다. 잘 있거라.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재정자립기금 \$1,324,971 (as of 01.25.2026)

*지난 회보에 게재된 금액은 모교발전기금과 장학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故고광선 (공57)
뉴욕-조상근 (법69)
필라델피아-신의석 (공53)

플래티넘이사 (\$50,000 이상)

조지아-주중광 (약60)
조지아-허지영 (문66)

골드이사 (\$10,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김경숙 (간68)
남가주-김일영 (의65)
남가주-김보연 (간63)
남가주-김용재 (의60)
남가주-노명호 (공61)
남가주-박종수 (수의58)
남가주-박창규 (약59)
남가주-서동영 (사60)
남가주-서치원 (공69)
남가주-성낙호 (치63)
남가주-심화섭 (약61)
남가주-이기준 (법54)
남가주-이병준 (상55)
남가주-이홍표 (의58)
남가주-벤자민홍 (문53)
남가주-하기환 (공66)
남가주-한귀희 (미68)
남가주-한홍택 (공60)
남가주-홍수웅 (의59)
남가주-홍훈정 (음70)
남가주-정상진 (상59)
뉴욕-강에드워드 (사60)
뉴욕-오인석 (법58)
뉴욕-이정자 (간59)
뉴잉글랜드-박영철 (농64)
뉴잉글랜드-오세경 (약61)
뉴잉글랜드-윤상래 (수의62)
뉴잉글랜드-정선주 (간68)
뉴잉글랜드-최홍균 (공69)
미시간-박용화 (의58)
북가주-강재호 (상57)
북가주-김정희 (음56)

북가주-민병곤 (공65)
북가주-전혜경 (문67)
샌디에고-이면기 (공64)
시카고-이용락 (공48)
시카고-조규승 (문72)
워싱턴주-김재훈 (공72)
워싱턴DC-이태영 (법60)
조지아-김현희 (간59)
커네티컷-김창수 (의54)
필라델피아-김영우 (공55)
필라델피아-손재욱 (가정77)
필라델피아-이만택 (의52)
하트랜드-이상강 (의70)
하트랜드-김경숙 (가정70)

실버이사 (\$5,000 이상)

남가주-故김원경 (약59)
남가주-故김병연 (공68)
남가주-故이종도 (공66)
남가주-권봉성 (문64)
남가주-김수영 (사57)
남가주-박인창 (농65)
남가주-이종묘 (간69)
남가주-이호진 (간74)
남가주-정임현 (간72)
남가주-정재훈 (공64)
뉴욕-김현중 (공63)
미네소타-황효숙 (사65)
북가주-박순희 (의60)
북가주-남광순 (음64)
북가주-차재철 (의62)
루지애나-강영빈 (문58)
워싱턴 DC-남옥현 (경영84)
워싱턴DC-배성호 (의65)
워싱턴DC-최재귀 (미63)
조지아-김경숙 (사64)
조지아-김태형 (의57)
조지아-임수암 (공62)
텍사스-이승화 (공03)

종신이사 (\$3,000 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58)
故서영석 (의55)

故오재인 (치33)
故윤낙승 (의60)
故오홍조 (치56)
강신용 (사73)
곽용길 (문59)
권기홍 (의60)
김광은 (음56)
김기형 (상75)
김대중 (의70)
김동훈 (의71)
김보연 (간63)
김상찬 (문65)
김성호 (법64)
김자성 (의79)
김재영 (농62)
김정빈 (공66)
나두섭 (의66)
나용화 (생과79)
류재풍 (법60)
박명근 (상63)
박용필 (문66)
박원준 (공53)
박운수 (문48)
방명진 (공73)
백길영 (의58)
백만일 (공64)
신건호 (법53)
신경자 (사60)
신영찬 (의63)
심상은 (상54)
안병일 (의63)
이근원 (공67)
이명선 (상58)
이성숙 (공56)
이세열 (사57)
이승훈 (상74)
이승훈 (상74)
이재진 (문55)
이청광 (상61)
임낙균 (약64)
임용오 (의57)
전경배 (의69)
전희택 (의58)
정균희 (의64)
정희영 (치58)
정동구 (공57)
정철룡 (의61)

제영혜 (가정71)
조용원 (문66)
조한원 (의57)
차민영 (의76)
차종환 (사54)
한효동 (공58)
홍성선 (약72)
홍종화 (약74)
황해룡 (공52)

뉴욕

故김광호 (문62)
故한창섭 (문57)
故김종률 (사51)
고애자 (음57)
권영국 (상60)
김승호 (공71)
김영용 (치55)
김한중 (의56)
김해암 (의52)
배정희 (사54)
서영숙 (간67)
석창호 (의66)
손병우 (문69)
손진태 (약67)
신응남 (문70)
오용호 (의66)
윤인자 (간63)
윤종숙 (약66)
이강홍 (상60)
이기영 (농70)
이대영 (문64)
이영재 (상58)
이재덕 (법60)
이재량 (상61)
이전구 (농60)
이준행 (공48)
이태호 (상58)
조대일 (사53)
최수용 (상55)
최영태 (문67)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추재욱 (의57)
한태진 (의58)
허선행 (의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69)
故박경민 (의53)
김광수 (문73)
고종성 (사75)
김문소 (수의61)
김용구 (공66)
오세경 (약61)
윤선홍 (치64)
이의인 (공68)
전신의 (문57)
정정욱 (의60)
정태영 (문71)
조만연 (상58)
홍지복 (간7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김태환 (의58)
남세현 (공67)
문성인 (공88)
박현아 (공88)
변우진 (문81)
송창원 (문53)
조형준 (문62)

미시간

故남상용 (공52)
故정태 (의57)
장병진 (공61)

북가주

박종성 (법53)
박진영 (공66)
손석보 (공68)
윤정욱 (약50)
최경선 (농65)
한만섭 (공49)
황동하 (의65)

샌디에고

임천빈 (문61)
유현주 (문65)
진성호 (공64)

시카고

故이윤모 (농57)
故강영국 (수의67)
故최의필 (의53)
소진문 (치58)
심상구 (상63)
이재희 (치67)
장윤일 (공60)
조봉완 (법53)
한재은 (의59)

알래스카

윤제중 (농55)

오레곤

김상순 (상67)
박희진 (농78)
이은상 (상5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66)
이지우 (의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53)
이명자 (간74)
이희백 (의55)
임헌민 (공84)

워싱턴 DC

故방은호 (약43)
故서휘열 (의57)
강연식 (사58)
공순욱 (간66)
권기현 (사53)
민홍기 (문61)
박평일 (농69)
오인환 (문63)
이내원 (사58)
이선구 (문65)
이윤주 (상63)
최지원 (의61)

조지아

김용건 (문48)
석호태 (공8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텍사스

박태우 (공64)
이광연 (공60)
조시호 (문59)

플로리다

김중권 (의63)
임필순 (의54)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55)
김현영 (수의58)
서중민 (공64)
신성식 (공56)
주기목 (수의68)

하와이

故최경운 (사51)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62)
김시근 (공72)
배규영 (사68)
오명순 (가정69)
이교락 (의53)

휴스턴

박진섭 (의6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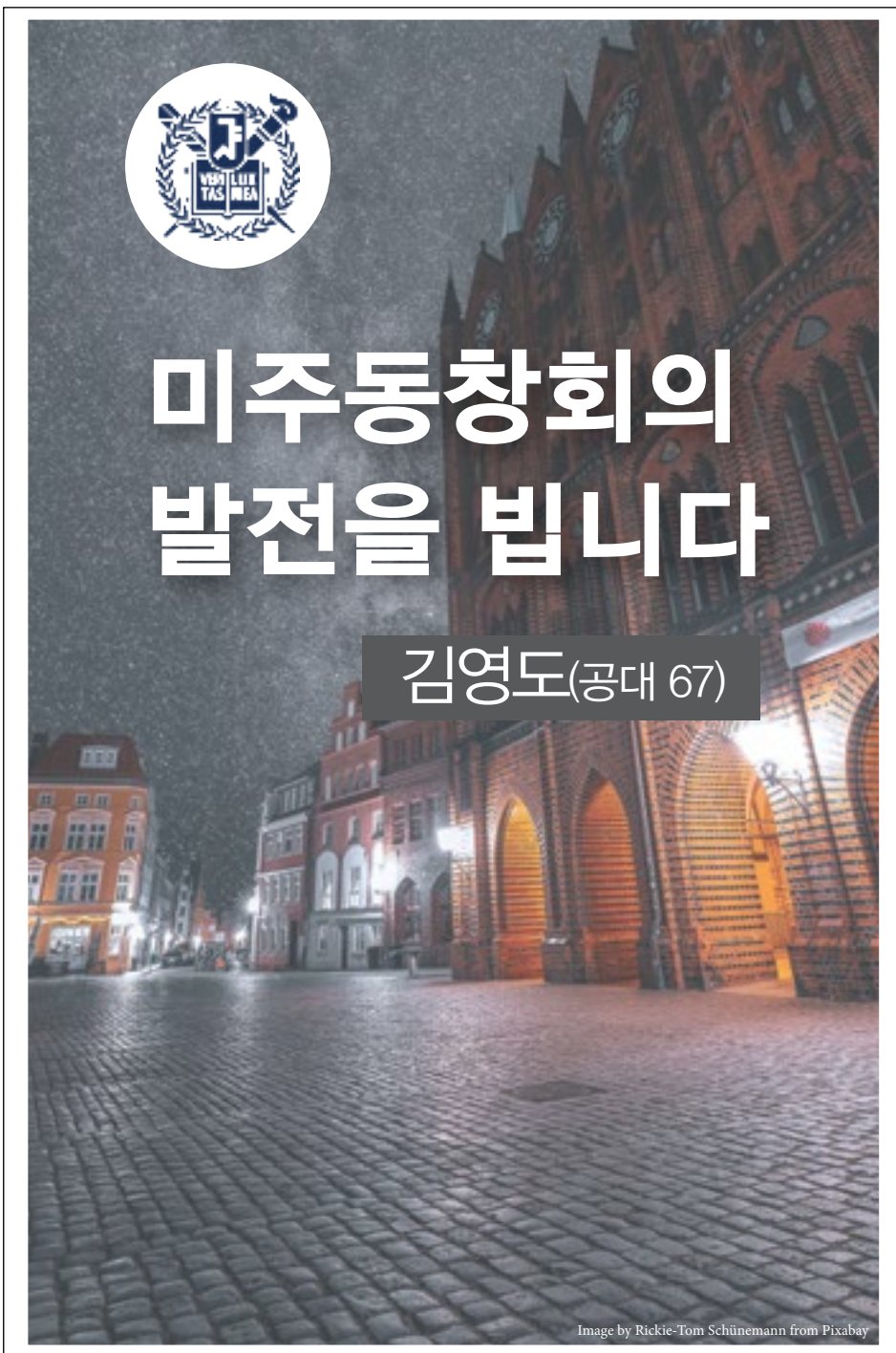
동창회비 | 1차: 2025.7.1~2026.6.30, 2차: 2026.7.1~2027.6.30


남가주 강경수 (법58) 강동순 (법59) 강호석 (상81) 고윤석 (공62) 김경숙 (가정70) 김경자 (미60) 김광주 (문69) 김기형 (상70) 김동산 (법59) 김동석 (음64) 김병환 (공58) 김상수 (상67) 김상찬 (문65) 김수영 (사57) 김영덕 (법58) 김영배 (미61) 김영중 (치66) 김옥경 (사60) 김원탁 (공65) 김택수 (의57) 김평우 (법63) 김학수 (공76) 김희창 (공64) 나두섭 (의66) 나승욱 (문59) 노명호 (공61) 문병길 (문61) 박은숙 (미62) 박인수 (농64) 박원준 (공53) 박중수 (수의58) 박호현 (의52) 벤자민홍 (문53) 서동영 (사60) 선우원근 (공66) 손학식 (공61) 송태진 (공79) 신건호 (법53) 신동국 (수의76) 심계식 (사63) 양은석 (음70) 임태준 (상56) 오선웅 (의63)	윤석철 (상60) 이방기 (농59) 이범식 (공61) 이상강 (의70) 이서희 (법70) 이연숙 (간76) 이종묘 (간69) 이진영 (의65) 이재권 (법56) 이창신 (법57) 이재진 (문55) 이호진 (간74) 이홍표 (의58) 임동규 (미57) 임창희 (공73) 장문섭 (공69) 장소현 (미65) 장원경 (미73) 장윤희 (사54) 장인숙 (간70) 정동주 (생72) 정명자 (사56) 정예현 (상63) 정 황 (공64) 조동철 (사68) 조 무 (법70) 주정래 (상65) 채규환 (법69) 천동우 (공63) 최영순 (간69) 한홍택 (공60) 한효동 (공58) 함송욱 (간73) 현기웅 (문64) 홍선례 (음70) 황건홍 (공55) 황현상 (의55)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고순정 (간69) 고애자 (음57) 권문용 (미61) 권영국 (상60) 권영대 (공69)	권정덕 (의58) 금영천 (약72) 김광현 (미57) 김문경 (약61) 김복영 (간69) 김용연 (문63) 김욱현 (의59) 김은희 (간78) 김정희 (간69) 김정희 (약56) 김중원 (사58) 김현중 (공63) 리준무 (음65) 민인기 (의67) 박건이 (공60) 박경희 (음57) 박은규 (약72) 박제순 (인문82) 박준재 (의63) 배상규 (약61) 변건웅 (공65) 서병선 (음65) 서의원 (공66) 석창호 (의66) 선종철 (의57) 성기로 (약57) 손갑수 (약59) 손진태 (약67) 송기인 (의60) 송용섭 (농63) 송용길 (대학원69) 신응남 (농70) 안태홍 (상65) 양명자 (사63) 양성택 (상66) 우규환 (사60) 유은희 (간71) 윤영섭 (의57) 이대영 (문64) 이문봉 (미76) 이상근 (경영84) 이상무 (의56) 이영범 (공71) 이재원 (상58)	이재진 (의59) 이충호 (의63) 이태안 (의61) 이홍우 (공50) 조남천 (사59) 조대영 (공61) 조태환 (상56) 진봉일 (공50) 최준희 (의58) 최한용 (농58) 최형무 (법69) 함중금 (간66) 허영자 (약63) Yong Auh (의66) 뉴잉글랜드 김경일 (공58) 김선혁 (약59) 김형범 (문57) 박중건 (의65) 신정음 (공60) 윤상래 (수의62) 윤영자 (미60) 이규진 (약60) 이금하 (문69) 현건섭 (공55) 룩키마운틴스 임현재 (의59) 미네소타 문성인 (공88) 성욱진 (치87) 임동근 (농14) 주한수 (수의62) 황호숙 (사65) 미시간 오동환 (의65) 이성길 (의65) 주명순 (간64) 최병두 (의52) 하계현 (공64) 한영신 (생과86) 북가주 강재호 (상57) 김갑균 (공60) 김교연 (문72)	김중현 (공60) 김현왕 (공64) 민병곤 (공65) 박서규 (법56) 부영무 (치72) 신규영 (공64) 위창호 (의67) 윤성희 (사58) 이정남 (공63) 전병련 (공54) 정지선 (상58) 정준임 (간67) 황치영 (의63) 최경선 (농65) 한상봉 (수의67) 홍병익 (공68) 황동하 (의65) 황만익 (사59) 북텍사스 송요한 (문73) 최휘기 (공61) 샌디에고 김인철 (약70) 오계환 (공64) 이문상 (공62) 임춘수 (의57) 시카고 김병윤 (문65) 김성일 (공68) 김승주 (간69) 김용주 (공69) 김용환 (공71) 김정수 (문69) 김현주 (문61) 민영기 (공65) 박창용 (공87) 백운기 (문56) 서상헌 (의65) 소진문 (치58) 신석균 (문54) 윤경순 (사61) 윤덕상 (치62) 이건정 (공69) 이경미 (미69)	이덕수 (문58) 이등균 (공75) 이용수 (약51) 이준수 (공76) 장윤일 (공60) 정성일 (공86) 최희수 (문67) 한의일 (공62) 한재은 (의59) 홍 건 (의64) 홍승우 (사회87) 홍청일 (약57) 황치룡 (문65) 오레곤 박희진 (농78) 한국남 (공57)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오하이오 유덕영 (공57) 워싱턴주 김민배 (수의59) 김재훈 (공72) 안승직 (농59) 유성열 (공대72) 윤석진 (문64) 이길승 (상57) 이정관 (농83) 이희백 (의55) 정영자 (사60) 채투환 (공83) 최준한 (공58)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권철수 (의68) 김내도 (공62) 김부근 (의52) 김용환 (치88) 김희주 (의62) 나연수 (사54) 남춘일 (사69) 박상근 (법75) 박인영 (의69) 박일영 (문59)	박홍우 (문61) 배성호 (의65) 백용현 (공64) 서윤석 (의62) 석균범 (문61) 오인환 (문63) 우제형 (상54) 이내원 (사58) 이민석 (공89) 이선구 (문65) 이상배 (수의57) 이연주 (치88) 이종국 (의52) 이준영 (치74) 정문필 (사56) 정 상 (약83) 정원자 (농62) 정평희 (공71) 최대용 (의73) 최재귀 (미63) 홍영석 (공58) 조지아 김기준 (공61) 김영서 (상54) 김학수 (상65) 남세현 (공67) 서광모 (공65) 성성모 (사67) 이종석 (의54) 임수암 (공62) 정선휘 (공65) 최종진 (의63) 중부텍사스 이학호 (수의59)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58) 정신호 (자연78) 조철영 (의68)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김경덕 (공75) 손재욱 (가정77) 이성숙 (가정74) 진기주 (상60) 장학후원금 남가주 김중섭 (문66) 노명호 (공61) 박원준 (공53) 한홍택/백훈(공60, 미61) 황현상 (의55)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황호숙 (사65)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워싱턴 DC 이경애 (문58)	이찬용 (치72) 이현림 (음81) 정균희 (의64) 최운화 (상78) 하기환 (공66) 하선호 (치81) 한태호 (문75) Duo America 남가주 대학원동문회 오인환 (문63) SNU Foundation 북가주 이경희 (인문83) 뉴욕 석창호 (의66) 미네소타 황호숙 (사65)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미시간 600 북가주 550 북텍사스 550 샌디에고 550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알래스카 오레곤 300 오하이오 300 유타 워싱턴DC 2,000 워싱턴주 800 조지아 800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200 커네티컷 300 테네시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300 하트랜드 550 하와이 휴스턴 550
--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후원금, Brain Network 후원금, Charity 후원금, 광고후원금, 지부분담금 | 2025.7.1~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기형 (상70) 600 김상순 (상67) 300 김영배 (미61) 200 박중수 (수의58) 3,000 양은석 (음70) 200 윤석철 (상60) 2,000 이범식 (공61) 200 이병준 (상55) 10,000 정예현 (상63) 200 정임현 (간72) 1,000 황현상 (의55) 200 뉴욕 강에드워드 (사60) 700 리준무 (음65) 200 신응남 (농70) 3,000 조남천 (사59) 300 뉴잉글랜드 오세경 (약61) 3,000 윤상래 (수의62) 1,000 정선주/박영철 (간68, 농64) 5,000 미네소타 강순근 (문57) 1,000 김권식 (공61) 40,000	황호숙 (사65) 4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공54, 56) 오동환 (의65) 400 북가주 황만익 (사59)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57) 200 시카고 최희수 (문67) 100 이용수 (약51) 250 서상헌 (의65) 100 오레곤 박희진 (농78) 200 오하이오 故정운행 (문53) 500 조지아 이종석 (의54) 100 워싱턴 DC 강길중 (약69) 500 권철수 (의68) 200 박평일 (농69) 500 서윤석 (의62) 200 정평희 (공71) 200	캐롤라이나 조철영 (의68) 200 테네시 김경덕 (공75)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500 이성숙 (가정74) 300 휴스턴 진기주 (상60) 1,000 장학후원금 남가주 김중섭 (문66) 10,000 노명호 (공61) 10,000 박원준 (공53) 500 한홍택/백훈(공60, 미61) 10,000 황현상 (의55) 100 미네소타 김권식 (공61) 10,000 황호숙 (사65) 10,000 미시간 고광국/고국화 (공54, 공56) 200,000 워싱턴 DC 이경애 (문58) 10,000	테네시 권준희 (가정87) 100 플로리다 오석일 (의64) 200 커네티컷 지부 후원 故유시영(문68) 10,000 Brain Network 후원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50 김자성 (의79) 500 김원탁 (공65) 240 김홍일 (치62) 250 독고량/서정화(음80) 250 배재현 (공75) 500 서동영 (사60) 240 송미선 (음89) 500 이명선 (상58) 1,000 이병준 (상55) 1,000 이상대 (농80) 250 이승훈 (상74) 1,000 이종묘 (간호69) 240	이찬용 (치72) 500 이현림 (음81) 500 정균희 (의64) 1,000 최운화 (상78) 250 하기환 (공66) 1,000 하선호 (치81) 250 한태호 (문75) 500 Duo America 300 남가주 대학원동문회 1,000 오인환 (문63) 200 SNU Foundation 2,000 북가주 이경희 (인문83) 500 뉴욕 석창호 (의66) 240 미네소타 황호숙 (사65) 1,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77) 240 지부분담금 남가주 3,000 뉴욕 1,000 로키마운틴 200 미네소타 550	미시간 600 북가주 550 북텍사스 550 샌디에고 550 시카고 2,400 애리조나 200 알래스카 오레곤 300 오하이오 300 유타 워싱턴DC 2,000 워싱턴주 800 조지아 800 중부텍사스 캐롤라이나 200 커네티컷 300 테네시 필라델피아 1,000 플로리다 300 하트랜드 550 하와이 휴스턴 550
---	--	--	---	---	--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달 2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a.org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빕니다

김영도(공대 67)

Image by Rickie-Tom Schünemann from Pixabay



유희자(음대 68)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www.hizakordance.com

9650 Reseda Blvd., Northridge, CA 91324
Youth Activity Center

남가주 CA	A.P.W. 자동차 부품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계/기술/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뉴욕 / NY.NJ
	의료/병원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자동차/서비스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옥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아주단독!! 맞춤형 대형 리무진 버스



사진사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앤텔룸캐년



FIRST CLASS BUS

아주단독! 32인승 25년 새 VIP 버스!

다수의 25년형 새 VIP 버스로 편안하게 모입니다!

아주만이 한인 체형에 맞춘 특별버스 도입! 아주 미서부 투어는 프리미어 버스로! 미서부는 물론 모국관광,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계일주 여행은 아주투어!!!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의 고품격 서비스

업계 유일 42년 무사고!

아주투어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저한 안전경영 덕분에 업계에서 유일하게 '42년 무사고'라는 경이적인 안전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년 역사의 관광회사

42년 역사! 미주 최대의 한인 여행사이자 최장수 기업입니다. 84년 창립된 이래 늘 1위 자리를 지킨 진정한 1등 여행사! 믿을 만한 관광은 아주투어 뿐입니다.

봉사하는 기업! 아주투어

IMF 외환위기, 금모으기 운동의 효시가 된 '모국에 달려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에 외화가 가도록 '모국관광' 상품을 최초로 개발. 다양한 무료관광 봉사 진행

믿을만한 1등 관광회사

40여년 한우물. 직접 발로 뛰며 개발한 여행상품은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박평식대표는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이상 현지로 손님과 함께 투어를 떠납니다.

최강의 호텔 네트워크

라스베이거스의 3대 체인 MGM(Bellagio, Luxor 등), Caesars(Caesars, Harrah's 등), Sands(Venetian, Palazzo) 컨트랙을 보유.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최고의 호텔

업계 최고의 가이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있는 아주투어 가이드는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풍부한 정보, 재치와 유머로 고객의 힐링투어를 책임집니다.

고객만족도 전미주 1등

1등 US이주투어

42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213-388-4000

서울지사 T.02-522-8686/E.seoul@usajutour.com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십시일반의 정성,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하나로”



동문 한 분 한 분이 보내 주시는 십시일반의 정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큰 힘입니다.

동창회비 납부 및 문의 방법



동창회비 QR 코드



612-280-7589



snuaa.org



contact@snuaa.org



주소 (아래 참조)



Check payable to: SNUAA USA

서울대 미주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 200 <input type="checkbox"/> \$ 500 <input type="checkbox"/> \$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7/2025~6/202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7/2026~6/2027, 1년) <input type="checkbox"/> \$200 (7/2025~6/2027, 2년)	<input type="checkbox"/> \$ 3,000 <input type="checkbox"/> \$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50,000 플래티넘 <input type="checkbox"/> \$100,000 이상, 다이아몬드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1,000 <input type="checkbox"/> 1/2 Size \$ 5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 300 <input type="checkbox"/> 1/4 Size \$ 250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1년) \$ 500	<input type="checkbox"/> SNUAA 장학후원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한국 이름 _____ 영어 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현주소 _____
업소록 광고비		업소명 _____		한국이름 _____ 단과대 _____ 학번 (입학년도) _____ 지부 _____ *2026년도 업소록 광고를 원하시는 동문께서는 광고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소 주소 _____ 업소 전화번호 _____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501(c)(3) 비영리단체로,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제18대 서울대 미주동창회

회장 황효숙(사)

상임고문: 송창원(문), 김권식(공), 신학철(공)
 고문: 한홍택(공) IT 담당
 이희운(농) 지속가능 발전기획 담당
 이준수(공) 조직관리 담당
 신용남(농) 법률 담당
 박평일(농) 친선 담당
 오인환(문) 전략개발 담당
 김태환(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II 의학 담당
 문성인(공) 지부지원 담당
 주한수(수) 특별행사 담당
 이승화(공) 세대간 소통 담당

차기회장 박상근(법)

명예회장 이상강(의)

역대 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신용남(농), 노명호(공)

집행부

사무총장: 박현아(공)
 총무국장: 임동근(경제)
 재무국장: 손창수(상)
 섭외광고국장: 홍선례(음)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발행인: 황효숙(사)
 편집고문: 박용필(문)
 편집장: 신복례(인문)
 편집위원:
 김정필(공), 정태영(문), 이준수(공),
 한정희(미), 윤정아(생), 최화진(음),
 문성인(공), 김량국(사), 이춘우(자연대),
 정해원(자연대), 백승아(자유전공)

지속가능 발전기획 위원회

위원장: 이희운(농)
 위원: 박현아(공), 강경철(공)

브레인 네트워크

국장: 변정민(공)
 SNU 포럼 위원회: 위원장 김재훈(공)
 Entrepreneurship 네트워크 위원장:
 김량국(사)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신용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이준수(공)
 위원: 김용현(상),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황효숙(사)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석(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651) 308-0796 | 이메일 contact@snuua.org |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6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nuua.org

남加州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양수진(간호대80) T: (714) 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원경란(의대 84)
 T: (778) 883-1678
 estellewon@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 617-7585
 monicaW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加州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대 79) T: (408) 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 223-0887
 jaej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원덕수(공대 72)
 T: (617) 921-6798
 douglasdwohn@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이득균(공대 75)
 T: (847) 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오충훈(자연대 81) T: (951) 795-8687
 peter.oh@asm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 998-4150
 jklee234@yahoo.com

오하이오주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 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 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영훈(농대 95)
 kim0hun@g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choi@hotmail.com

휴스턴 H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대 91)
 회장 kunhok@gmail.com

중부 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 290-1911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 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김인구(농대 87)
 T: (404) 547-1859
 kevin@ikkimla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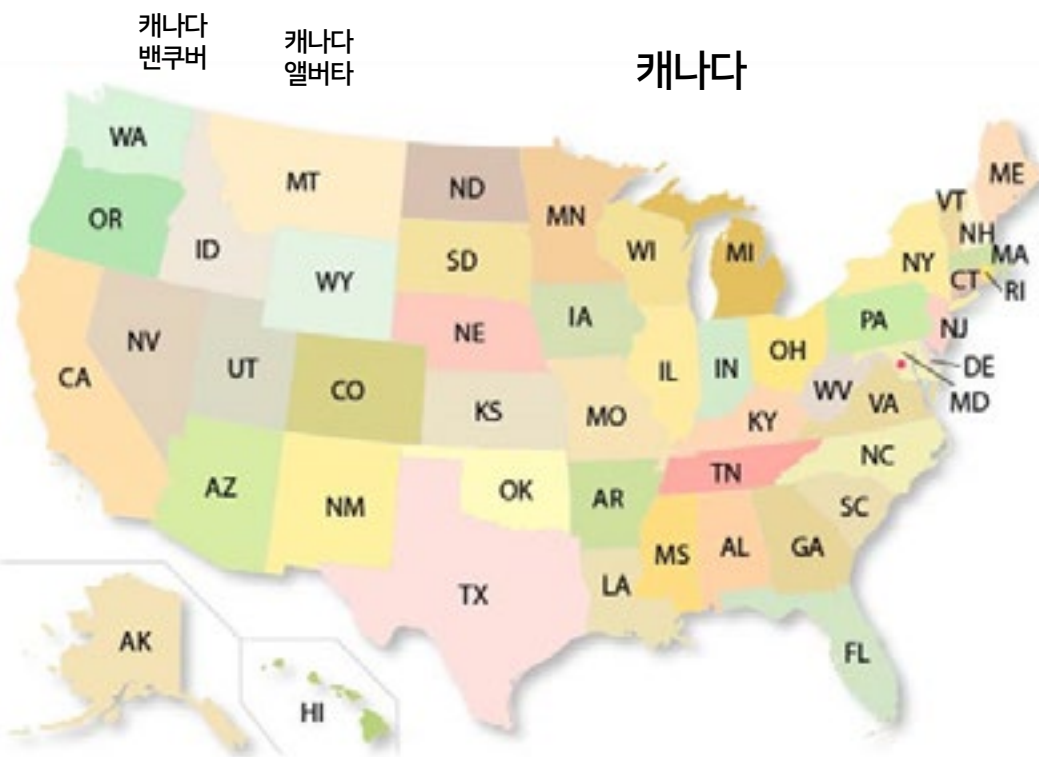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 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NE/AR/OK (Jan~Dec)
 이주현(공대 69)
 T: (913) 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조동건(법대 65)
 T:
 dcho0806@bellsouth.net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박상효(의대 65) 산부인과

SANG H. PARK, M.D.

Tel : (323) 730-0200

Fax: (323) 730-1653

s8park_md@sbcglobal.net

1300 N. Vermont Ave., #702
Los Angeles, CA 90027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빕니다

양은석(음대 70)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8대 황호숙 미주동창회장과 임원 일동



SNU Alumni Association USA
855 Village Center Drive, Suite 357
North Oaks, MN 55127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빕니다



신정식(상대 64)



서울대학교 문리대 OB산악회

단장: 남궁원(문리대 61)
대장: 권봉성(문리대 64)
대원: 김남수(문리대 64)
조경석(문리대 64)
이홍진(의대 73)
노용국(공대 76)

